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1주년 기념 포럼

## 세계 속 한국어와 태권도의 위상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 (ICKC-Seoul)



## 차례

### [ 개회사 ]

|                                     |    |
|-------------------------------------|----|
|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며 이광규 ..... | 05 |
|-------------------------------------|----|

### [ 한국어 ]

|      |                                   |           |    |
|------|-----------------------------------|-----------|----|
| 발제문  | 한국어의 세계화, 그 실상과 새로운 추진 방안         | 박갑수 ..... | 09 |
| 토론문1 | 『한국어의 세계화, 그 실상과 새로운 추진방안』에 대한 논평 | 최상현 ..... | 28 |
| 토론문2 | 『한국어의 세계화, 그 실상과 새로운 추진방안』에 대한 논평 | 진대연 ..... | 32 |

### [ 태권도 ]

|        |                                  |           |    |
|--------|----------------------------------|-----------|----|
| 발제문 I  | 태권도 강국을 태권도 선진국으로                | 송종국 ..... | 37 |
| 토론문    | 『태권도 강국에서 태권도 선진국으로』에 대한 논평      | 김하영 ..... | 46 |
| 발제문 II | 세계화에 적합한 태권도 철학 및 정신 구축          | 이정명 ..... | 49 |
| 토론문    | 『세계화에 적합한 태권도 철학 및 정신 구축』에 대한 논평 | 하피터 ..... | 61 |



##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며



이광규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이사장

서울에서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가 발족한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선례도 없고 과거에 아무도 생각지 못한 우리 'ICKC-서울'이 전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하여 시작한 것이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장내를 채워주신 여러 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2월 24일에는 하와이에서 성대한 'ICKC-하와이본부'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아틀란타, 시카고 등 다른 지역에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ICKC-하와이본부' 창립총회를 위하여 한국에서 21명이 참석하였고 하와이 현지에서는 학계, 교육계에 계신 분은 물론 하와이 한인 유지 80여명이 참석, 대대적인 창립총회를 이룩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참가하신 분 모두가 각자 자비로 많은 경비와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하와이 총회에 참석하신 것은 평상시 말없이 한국문화국제교류

---

운동본부를 지켜보시던 분들이 중대한 일을 추진함에 무조건 후원하여 주신 여러 회원님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창립 1주년을 맞아 예상 외의 좋은 업적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이 묵묵히 사무국을 지켜 보시면서도 사업이 있을 때면 말없이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여러 회원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진행하려는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학술대회는 “세계 속 한국어와 태권도의 위상”이라는 주제 하에 학계의 권위자이신 서울대 박갑수 교수, 경희대 송중국 교수 그리고 태권도문화연구소 소장이신 이경명 선생께서 발제를 하여 주시고 전문 토론자도 참가하였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는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가 추진하여 온 한국어와 태권도의 위상을 더욱 분명히 하여 우리들의 앞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Ten Thousand Project’ 라 하여 10년간 미국 내에 1,000 개의 한국어를 수업하는 학교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업적으로 보아 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우리들의 계획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창립 1주년’ 을 축하해 주시고 학술대회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이 포럼이 ‘한국문화 세계화’ 를 위한 귀중한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1**주년 기념 포럼

[한국어]

**한국어의 세계화,  
그 실상과 새로운 추진 방안**

발 제\_ 박 갑 수 서울대 명예교수, 본회 연구위원장

토 론\_ 최 상 현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

토 론\_ 진 대 연 호원대 한국어학과 교수, 한국어교육원장



# 한국어의 세계화, 그 실상과 새로운 추진 방안

박 갑 수 서울대 명예교수, 본회 연구위원장

## 1. 서언

나는 1960년대 말 이런 생각을 하였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자가용 시대는? 그리고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가르치는 날은? 이런 것들이 당시로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다 이루어졌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약 3,000개의 언어 가운데 한국어는 그 사용 인구로 볼 때 세계 15위 안에 드는 큰 언어다. 인구수는 세계 25위다. 따라서 약소민족의 언어가 아니다. 더구나 우리는 700만 재외동포를 가진 재외동포 대국이다. 거기에다 10대의 경제 대국이다. 따라서 한국어는 국제적인 언어, 세계적인 언어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

우리는 단일민족(單一民族)이란 의식이 참으로 강하다. 그리고 이 단일민족이란 의식은 우리에게 자민족중심주의(自民族中心主義), 자문화중심주의(自文化中心主義)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경향을 우리 의식 속에 심어 놓았다. 지난날에는 민족이나 국가 간의 교류·소통이 활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립적·독립적이었다. 이런 시기에는 폐쇄적 민족주의가 흠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개방의 시대, 더 나아가 세계화 시대, 다문화 시대에는 폐쇄적 민족주의만을 고집해서는 곤란하다. 그렇

게 되면 민족이나 국가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는 우리 근세사가 잘 말해 준다. 서로 소통하고, 언어·문화를 교류하며 어울려 살아야 한다. 차이를 인정하며 폐쇄 아닌, 양보와 포용의 자세로 협동해야 한다.

우리는 일일 생활권이란 지구촌(地球村)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인간생활의 대 원칙은 협동에 있고, 이는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간에 언어문화를 교류하게 되면 상호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어 우호관계가 성립된다. 그리고 협동을 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상호 발전을 하게 된다. 세계화(世界化) 시대, 다문화(多文化)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언어·문화를 세계화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상대방 민족이나 국가와 친선을 도모하고, 문화 발전을 기약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국가 브랜드의 가치도 높아져 경제적 효과도 가두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런 의미에서 강대국의 언어제국주의(言語帝國主義) 속에 한국어가 살아남고, 나아가 폐쇄 아닌, 열린 자세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 언어문화를 교류하며 세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특히 종전에 거론된 세계화의 방안들은 일단 접어두고, 새로운 추진방안(推進方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그러나 이는 기발한 방안의 모색이 아니라,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러면서도 한국어 세계화의 핵심적 방안이라 할 것들이다. 따라서 논의는 우선 한국어 세계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 정책과 살상을 살피고, 나아가 한국어 세계화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 2. 한국어의 세계화 정책

한국어의 세계화 정책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화”의 개념부터 알아보아야 한다. 그것은 “세계화”라는 말이 다양한 개념으로 쓰여 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화(globalization)”는 새로운 세기의 문화와 문명의 기준으로 활발하게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개념을 허영선(2000)은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와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둘째, 어떤 사실의 지리적 공간 확대로서의 지구화(地球化)를 의미한다.

셋째, 정치적·문화적·경제적 지배를 의미한다.

넷째, 19세기 중반에 추진하던 근대문명의 기준인 부국강병의 추구를 의미한다.  
다섯째, 자본주의 체제 중심 세력들이 주변 세력을 종속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섯째, 신문명의 기준으로서 “복합화”를 의미한다.

세계화는 대상에 따라 다소간에 그 개념을 달리한다. “한국어의 세계화”는 위의 개념으로 볼 때 둘째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를 지리적·공간적으로 널리 보급해 “지구화”한다는 말이다. “한식의 세계화”와 같은 개념이다. 언어문화의 공통화(共通化), 한국어의 매개어(媒介語)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매개어가 강요될 때에는, 언어 제국주의(帝國主義)가 된다. 그래서 각국은 자국어 중심의 문화권(文化圈)을 형성하려 한다. 英·美·佛·獨 등의 국제문화조직이 이런 것이다. 특정언어에 의한 언어적 제국주의를 원치 않기 때문에 자국어(自國語)를 매개로 한 문화권을 형성하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몇 개의 언어를 중심으로 커다란 부분문화권이 형성된 바 있다. 이는 하나의 언어에 의한 언어적 제국주의를 지양하여 다문화(多文化)를 지향하려는 것이다. 이의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옛 프랑스령의 여러 나라들이 프랑스어를 공통어화(共通語化) 하기 위해 탄생시킨 OIF(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프랑스어권 국제기구)다. 이는 프랑스어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기구(68개국 가운데 29개 아프리카, 3개 아시아 국가 포함)로, 이들 국가는 영어의 세계적 지배에 맞서 프랑스어 사용 증진을 본질적인 축으로 하며, 언어의 다양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이들은 문화의 다양성과 다언어 병용(並用)을 옹호하고자 한다(梅棹, 1988).

자국어를 세계화는 그 나름의 이유를 지닌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세계에 보급하여 다문화를 형성(언어제국주의 지양)
-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
- 자국어에 의한 문화지배
- 언어소멸에 대한 대비

세계화는 문화적 연대를 원하는 나라의 자주성을 중시하며, 서로 손해를 보지 않는 호혜성(互惠性)을 전제해야 한다. 특정 언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닌, 자국어의 문화권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어를 세계화한다고 할 때에도 자칫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것은 19세기 침략주의·식민주의 시대와 같이 문화제국주의(文化帝國主義), 언어제국주의(言語帝國主義)를 지향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보다 후진국에 세계화할 때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화는 물론 그런 의미가 아니다. 문화를 상호 교류함으로 서로 이해하고, 친선 우호적 관계를 도모하는 문화권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서로 경계하게 된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상호교류는 상승효과(上乘效果)를 보여 그 문화를 고양(高揚)하고, 발전시키게 된다. 이의 단적인 예는 사라센 문화, 중국 주변의 한자문화에서 잘 볼 수 있다. 우리 언어문화의 세계적 보급, 광역화는 좀 더 폭넓은 친한 이웃을 만들고, 다문화 사회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그간 한국어 세계화 정책(政策)은 별로 수립되지 않았다. 수립된 것이 있다 해도 별로 드러나지도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정책이나, 법령에 “세계화”라는 말이 별로 쓰이지 않았고, 거둔 성과도 이렇다 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사용된 것은 문민정부 때의 “세계화추진위원회”와, 언어에 대한 것으로 “한국어의 세계화”란 말이 좀 쓰였을 뿐이다. 문화예술진흥법(1972, 1982, 2005, 2006) 시행령 제11조의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 1998년에 활동하기 시작한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그리고 이어서 2001년 설립된 “한국어세계화재단”에 “세계화”란 용어가 쓰인 것 등이 고작이다.

이 가운데 “한국어세계화재단”은 명실 공히 한국어 세계화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민간 기구다. 여기서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초급 교재를 간행하고, 한국어 교육능력 인증시험 등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경제적 사정으로 “국내 및 국외의 한국어 진흥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등 정관에 보이는 “재단에서 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세종학당 계획을 수행하게 되며 재단 본래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뒤 2005년에 국어기본법(國語基本法)이 제정 공포되며, 세계화라는 용어는 쓰이지 않았으나, 국어발전 기본계획 속에 “국어의 국외보급에 관한 사항”을 담게 되어 있고(제62조 6항), 동법 제19조에서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를 위하여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 해외 보급에 대한 법령으로 대표적인 한국어 세계화 정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2005년에는 또 국외 한국어 진흥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한국어 국외 보급사업 협의회”도 발족시켜 운영한 바 있다.

한국어 세계화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본격적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것은 2007년부터 국어기본법에 따라 새로운 정책으로 세종학당(世宗學堂) 계획을 추진한 것이다. 문화부는 2007년부터 한국 언어·문화를 확산하고자 세종학당 설립 계획을 세웠다. 이는 영국의 British Council, 미국의 American Center, 독일의 Goethe Institute, 프랑스의 Alliance Francaise, 일본의 국제교류기금(The Japan Foundation), 중국의 공자학원과 성격이 유사한 기구이다. 세종학당의 성격은 “개방형 한국어 문화학교”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사회교육원 형태의 현지 교육 시설”(문화부·국립국어원, 2007)이다. 이의 설립 목적은 문광부·국립국어원의 “세종학당 운영 길잡이”(2007)와 국립국어원의 “2007 세종학당 백서” 등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 문화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쌍방향의 문화교류와 이해 촉진
- 지식인 중심의 엘리트 교육에서 탈피, 대중적 한국어 교육의 확대
- 국가 간의 문화적 연대와 공존을 위한 교류협력 증진

이러한 설립목적은 “2007 세종학당 백서”의 운영 세부 지침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세종학당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표현 이해 중심의 한국어 능력 향상
- 현지 일반 대중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확대
- 양국 문화가 충실히 반영된 교재를 활용한 문화 교류 증진
- 한국어 한국 문화 통합 교육으로 전 세계에 한국 홍보 효과 증대

세종학당은 이와 같이 쌍방향의 문화교류를 통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자 하는 현지 교육 시설이다. 이 정책은 현 정부에 들어와 좀 더 강화되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립하고, 10대 우선 추진과제의 하나로 “한국어 해외보급의 확대”를 작성한 것도 이러한 것이다. 세종학당은 현재까지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등 34개국에

75개소 설치되었다. 지역별 설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아주(45) : 중국 17, 몽골 2, 일본 2, 대만 1, 베트남 5, 태국 3, 스리랑카 2, 캄보디아 1, 인도 1, 인도네시아 2, 필리핀 4, 방글라데시 1, 네팔 1, 터키 3
- 구주(17) : 러시아 3, 카자흐스탄 3, 우즈베키스탄 1, 타지키스탄 1, 독일 2, 프랑스 2, 영국 2, 스페인 1, 벨기에 1, 폴란드 1
- 미주(7) : 미국 4, 캐나다 1, 페루 1, 아르헨티나 1
- 대양주(1) : 호주 1
- 아프리카(5) : 알제리 1, 아랍에미리트 1, 나이지리아 1, 케냐 1, 짐바브웨 1

세종학당은 금년 하반기에 15개소가 추가될 예정이며 연말까지 90개소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한국어 세계화재단은 세종학당을 2015년까지 모두 500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세종학당의 실제 운영은 한국문화원과 연계하여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현지 대학이나,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에서 맡고, 기존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세종학당의 설립은 제1단계에 동북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하고, 제2단계에 동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 하기로 하였다. 아시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한국과 경제·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우선 보급하고 나아가 한국어를 국제공통어(國際共通語)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도라 할 것이다. 이러한 블록 문화권의 형성은 한국어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문화산업 시장의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두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이러한 세종학당에서 사용할 교재도 범용교재(汎用教材)로 편찬하여 중국어·태국어·베트남어·몽골어 등등 여러 나라 말로 번역·제작하였다. 범용교재(汎用教材)의 번역본이라 “양국문화가 충실히 반영된 교재로” 언어·문화의 통합교육을 지향한다는 “교육 목표”와는 거리가 있으나 아쉬운 대로 다행한 일이다.

이 밖의 한국어 세계화 정책은 구체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 “한국어 세계화의 실상”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3. 한국어 세계화의 실상

#### 3.1. 정부 관련 기구에서의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은 세계화를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국제정세의 변화로 이방(異邦)의 현장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교육과정도 없이 부족한 교사를 가지고, 교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운데 교육이 행해졌다. 이러한 사정은 오늘날 크게 나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과정은 아직도 국가수준의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학습 자료는 3,000여종이 개발되었다고 하나(진대연 외, 2009) 역시 아직 취약한 형편이다. 거기에다 자격을 갖춘 교사는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은 빨리 개선되어야 하겠다.

한국어가 교육의 대상이 된 것은 물론 국력이 신장됨에 말미암은 바 크다. 국력이 신장되며,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는 순수한 외국인도 말할 것도 없고, 재외동포들까지 그러하였다. 한 예로 재소동포(在蘇同胞)의 대부분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전까지만 하여도, 한국 사정을 거의 몰랐고, 이들 대부분은 한국어를 하지 못하였다. 서울 올림픽 때 한국의 발전상을 시청하고, 비로소 조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자 하게 되었다.

정책적으로 수행되는 한국어의 해외 보급, 곧 정부의 한국어 세계화 사업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는 대체로 분화되어, 문화관광부는 외국인의, 교육인적자원부와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의, 노동부는 취업 이민자의, 여성가족부는 결혼 이민자의 교육을 담당한다. 이들 정부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서는 물론 정책을 수립하고, 실제 한국어교육은, 특히 외국에서의 교육은 대체로 현지의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등이 맡고 있다. 주요 기관의 한국어 교육 관련 주요 업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국립국어원은 세종학당 운영 사업과 다문화 가정 한국어교육 계획과 운영을 맡고 있다. 한국어세계화재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교재 개발 및 보급과 교육능력시험을 담당하고 있고, 세종학당 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국립국제교육원은 주로 재외동포 자녀 모국 방문 사업과, 교육과정평가원이 수행하던 한국어능력시험을 담당한다. 이 밖에 한국학술진흥

재단에서는 한국학 및 한국어 연구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외교통상부(外交通商部)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민족교육 지원 사업을 담당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 한국어 학습 기회 확대 사업 및 펠로우십(fellowship) 제도를 통한 한국학 관계자를 초청하고, 연구 및 연수하는 일을 지원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연수생 초청 사업과 한국어교육 봉사단 파견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서는 주로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단원을 파견하고 있다.

이 밖에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지 교육기관은 매우 빈약하다. 교육관 5개국 11명, 한국교육원 14개국 35개원, 한국문화원 9개국 12개원, 한국학교 14개국 26개교, 한글학교 106개국 2,072개교다(박갑수, 2010). 민간기구인 한글학교를 제외한 한국 정부의 기구는 일본의 총련계 초·중·고교가 1993년에 149개교, 2004년에 130개교라는 것을 상기하면 더욱 빈약하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박갑수, 2009). 한글학교를 포함한 이들 교육기관은 주로 재외국민을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한국어 세계화에도 거리가 있다.

이 밖에 한국 정부가 아닌, 현지 정규학교에서 재외동포, 그것도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언어·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중국의 조선족 자치주(自治州)의 조선족학교가 평등원칙에 따라 민족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조선족이 외국국적 동포이므로 현지 공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세계화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된다. 일본의 조선족 학교는 1,000여개에 달한다. 총련계 조선학교는 “조선사람”으로서의 자각에 기초한 삶을 지향하는 민족교육을 하고 있어 북한의 입장에서 재외 국민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앞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한국어교육 관련 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한국어 세계화 사업에 대해 약간 덧붙이기로 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해외 대학의 한국어와 한국학 분야 교수직 신설을 지원한다. 교수직은 TTP(Tenure Track Position) 교수직과 기금 교수직(Endowed Chair)의 두 가지다. 재단 홈페이지에 의하면 1992년~2010년 사이 총 12개국 68개 대학 99석의 교수직을 지원하였는데, 한국어 세계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한국어 17, 한국어문학 4, 문학 12, 한국어문화 19석이다. 그리고 해외 한국학 진흥을 위한 1992~2009년 체한연구 펠로우십 지원은 74개국 937명을 하였고, 한국어 펠로우십 지원은 88개국 1,314명에게 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홈페이지에 의하면 지금까지 53개국 총 6,499명

(NGO 해외봉사단원 포함)의 해외봉사단원을 파견하였다. 2010년의 평균 활동 인원은 1800명(KOICA 1620명, NGO 180명) 내외이며, 이 가운데 한국어교육·유아교육·과학교육을 주요 직종으로 하는 교육 분야 관계자가 25%이다.

### 3.2. 외국 대학 등에서의 한국어교육

현재 국내(國內)에서는 약 60개 대학에 부설된 언어교육원과, 10여 개 사설학원 등에서 한국어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또한 한국어 교육의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인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도 각각 10여개씩 설치되어 있다. 해외(海外)에는 서아정(2004)에 의하면 62개국 750개의 대학과, 8개국 1,525개의 초·중·고교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해외한국학백서”(을유문화사, 2007)의 “해외 한국학 강좌 개설 대학 현황 비교”에는 2005년 말 국가별 대학의 추정치라 하여 62개국 735개의 대학과, 실제로 조사한 55개국 632개 대학이 소개되고 있다. 실제로 조사가 안 된 곳은 개설 대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사 여건상 빠진 것이다. 참고로 추정치를 바탕으로 해외 한국학 강좌 개설 대학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브루나이의 경우는 추정치가 공란이고, 실제조사 수치가 제시되어 있어 괄호 처리를 하였다.)

- 아주 : 중국(홍콩) 42, 대만 9, 일본 335, 베트남 10, 몽골 12, 말레이시아 6, 인도네시아 3, 미얀마 2, 브루나이 (1), 스리랑카 1, 방글라데시 1, 싱가포르 2, 인도 4, 태국 16, 필리핀 2, 뉴질랜드 1, 호주 7
- 미주 : 미국 140, 캐나다 7, 멕시코 3, 아르헨티나 3, 칠레 3, 브라질 1, 과테말라 1, 페루 2, 파라과이 1
- 구주 : 독일 10, 영국 3, 프랑스 7, 네덜란드 1, 덴마크 1, 노르웨이 1, 스웨덴 1, 핀란드 1, 벨기에 1, 리투아니아 1, 러시아 42, 루마니아 3, 세르비아-몬테네그로 2, 벨로루시 1, 우크라이나 2, 불가리아 1, 아제르바이잔 1, 에스토니아 1, 카자흐스탄 10, 우즈베키스탄 5, 키르기스스탄 2, 터키 2, 이탈리아 3, 오스트리아 1, 스페인 2, 체코 2, 폴란드 3, 헝가리 2
- 중동 : 요르단 1, 이란 1, 이스라엘 2
- 아프리카 : 이집트 2, 튀니지 1, 수단 1, 모로코 1, 알제리 1

이들 통계는 정확한 것은 못 된다. 중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래에 보듯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 가운데 한국학 강좌가 많이 개설된 곳은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이다. 이에 이들 대표적인 지역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어교육은 우선 “韓流”란 말도 있듯, 근자에 열풍이 대단하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중국, 동남아, 몽고 등이 현저하다. 중국(中國)의 경우는 수교(修交) 이전에는 한국학과를 개설한 대학이 불과 5개였는데, 2009년도에는 4년제 대학의 한국어학과만 하여도 70여개에 이르며, 전문대학을 포함하면 180여개 대학에 이른다. 학생 수는 1만 8천여 명에 달한다(동아, 09. 6. 5.). 동남아의 경우는 특히 취업 이민, 곧 코리아나 드림으로 열풍이 부는 곳이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KLT)도 실시되고 있어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박갑수, 2005). 일본(日本)의 경우는 수교(修交) 이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대학이 5개에 불과했는데, 수교 이후 부쩍 늘어 위의 통계에 보이는 바와 같이 300여개 대학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일본에는 한국어 강좌가 고등학교에도 개설되어 있는데, 일본의 문부과학성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본의 고등학교가 10년 사이 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래서 1995년 73곳에서 2005년 286 곳으로 늘어나, 한국어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서는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밀어내고 중국어 다음으로 부상하였다고 한다. 일본 대입시험인 센터시험의 수험자 수도 영어, 중국어, 한국어의 순이라 한다.(중앙일보, 07. 7. 12) 미국(美國)의 경우도 한국어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이다. MLA(Modern Language Association)에 의하면 미국에는 2006년에 125개 대학에 한국어교육 과정이 개설된 것으로, 손호민(2007)에 의하면 148개 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50년대 초에 한국어는 중국어 또는 일본어의 부수과정으로 개설되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에 학구적 대상이 되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미국에도 중·고등학교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학교 수는 65개다. 독립국가연합(獨立國家聯合)도 한국어교육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유럽 최대의 러시아 국립사회대에서 장학생(학비 면제) 전원(500명)에게 부전공 필수과목으로 한국어를 이수하도록 결정했다(중앙일보(09. 6. 8)고 할 정도로 한국어교육이 부상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상 한국어교육의 실상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어교육은 이러한 교육기관에서만 피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설 기관에서도 행해지고 있고,

방송, 웹 등을 통해서도 행해지고 있다. 물론 개별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국어 교육은 바야흐로 전성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만하다. 그리하여 중국에서는 자고나면 한국어과가 생겨나는데 지금은 괜찮으나 이들을 사회에서 다 소화해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 앞날이 걱정이라는 즐거운 비명을 들어야 할 정도다.

#### 4. 한국어 세계화의 새로운 추진 방안

한국어 내지 한국 언어문화의 국제화, 세계화는 이제 날갯짓을 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내일을 내다보며, 한국어 세계화가 힘찬 발전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이에 다음에는 한국어의 국제화, 세계화를 추진함에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제시해 보기로 한다. 다만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에 논의되던 추진방법은 일단 잠정적으로 접어두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간 미처 생각지 못해 놓쳤던, 새로운 추진방안 몇 가지를 제기·논의하기로 한다.

첫째, 해외의 교육정책(教育政策)에 대응하여 적극적 조치를 강구한다.

한국어는 그 사용 인구로 볼 때 세계적 통용어가 되기에는 충분하다. 거기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700만 재외동포가 175개 국가에 나가 살고 있어 그 가능성은 더욱 크다. 그런데 그간 우리는 한국어의 세계화에 대해 너무나도 무관심했고 소극적이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수한 나라들은 그 동안 자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래서 프랑스는 Alliance Francaise를 136개국에 1,074개소, 영국은 British council을 110개국에 238개소, 독일은 Goethe institute를 79개국에 147개소, 중국은 공자학원을 81개국에 324개소, 일본은 국제교류기금을 31개국에 39개소(문화원은 96개국에 187개소)를 개설하여 자국어, 또는 자국 문화를 열심히 세계화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우리가 늦게나마 세종학당 계획을 세워 34개국, 75개의 세종학당을 설치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근자에는 K팝 등 한류(韓流)의 바람과 코리안 드림의 열풍이 불고 있다. 거기에도 미국에서는 1966년 “21세기를 대비한 외국어 습득 기준”을 제정하여 외국어와 외국 문화 교육을 강화한 이래, 2000년 Flagship Scholarship Language Initiative(NFLI) 법안을 통과시키고 National Security Education Program, 곧 Flagship Scholarship

을 발표하며 한국어 등 8개 언어를 안보 차원의 주요 언어로 선정하였다. 국가 안보, 국가 경쟁력 강화,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배워야 할 중요한 언어의 하나로 한국어를 선정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2004년의 Bush Grant, 2008년의 National Security Language Initiative로 이어져 한국어는 계속 주요 언어로 선정되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포상을 해 가며 한국어를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여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 같다. 이는 우리로서는 불감청이나 고소원의 정책이다. 세종학당 계획도 필요하고, 이 밖에 이런 저런 정책과 방법도 다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국의 Flagship Scholarship Plan 등과 같이 상대국이 스스로 한국어교육을 자청한다면 우리는 이를 잘 활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가 노력해 쉽게 얻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기회에 한국어의 해외보급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교육행정권은 연방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州) 정부나 학교구(學校區) 및 학교에 있다. 연방정부는 Flagship Scholarship Plan과 같이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자극제로서 포상을 하는 것뿐이고, 각 주(州)의 교육에 직접 관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 및 현지 유지 등 관계자로 하여금 한국어교육을 추진하게 할 일이다. 본래 자국어의 보급을 국가에서 하는 것은 언어제국주의적(言語帝國主義的) 발상으로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상대국의 정책에 협조·호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의 성격상 외교적 채널을 통해 깔끔하게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가능한 일이지는 하나,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그 성패는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이다. 구주연합(歐洲聯合) EU의 경우도 한국어 세계화의 여건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그것은 EU의 외국어교육 정책은 모어 외에 두 개의 외국어를 학습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동 정부의 심의회 COAG의 보고서에 따라 한국어가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와 함께 학습 우선도가 높은 아시아 4개 언어로 작정되어 학습이 실시되고 있으니 여기에도 강화 정책을 수립하여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세종학당도 여러 개 설립 운영하게 되었고, 바야흐로 한국어 세계화의 분위기도 여러 가지로 성숙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각국의 언어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 상대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한국어를 세계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때 투자에 너무 인색해서도 곤란하다. 한국어의 세계화는 투자한 이상의 브랜드 가치를 창조해 낼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해외의 중·고등학교(中高等學校)에 대한 한국어교육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한국어교육은 주로 고등교육인 대학에서의 교육과 일반 대중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교의 한국어교육이라 할 것이다. 이는 공교육이어 비중이 있고, 파급 효과가 클 뿐 아니라, 고등교육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이 미미하다.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호주 등 8개국에 겨우 1,525개 초·중·고교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교육이 행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나 관련 기관은 이에 대해 별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있다면 미국의 LA에서 한국어진흥재단이 SAT II 한국어 후원 사업으로 좀 더 많은 고등학교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도록 운동을 벌이는 것이 있을 뿐이다.

외국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시비하고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내정 간섭이라 비판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딱 그렇지만은 않다. 정상적인 정치·외교적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합의·결정된다면 오히려 윈윈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외국의 사례를 한 둘 들어 참고하기로 한다. 일본은 과거에 식민지(植民地)를 경영하며 일본어 사용을 강요한 전력도 있어 일본어 보급정책을 소극적으로 펴, 정책 기조를 현지주도(現地主導)에 두었다. 전제(前提)도 현지주도, 도달목표도 현지주도에 두었다. 이는 일본어 보급을 스스로 앞서 이끌고 나아가지 않고, 뒤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주베트남 대사가 베트남의 교육훈련부 장관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베트남 중학교에서의 일본어 교육을 요청했고, 이것이 수용되어 2003년 전기 중등 레벨의, 그리고 2007년 후기 중등 레벨의 일본어 교육이 실시되게 되었다. 또 하나의 예는 2005년 일본과 인도의 두 수상이 “아시아 신시대에 있어서의 일인(日印) 파트너십”이란 문서에 서명하며, 당시 5,500명에도 미치지 못했던 일본어 학습자를 50,000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는 중등 교육과정에 일본어를 정규 선택과목으로 넣어 2006년부터 학교 교육에 도입하게 하였다(鳴津, 2010). 이렇게 외국의 교육정책도 정치·외교적 노력과 협의에 의해 바뀐다. 따라서 우리도 소극적 자세만 취할 것이 아니고, 외국의 고등학교에 한국어교육 과정이 개설되도록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고등학교 교

육과정에 한국어 과목이 들어가 현지 학생들이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국제화·세계화 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수용하고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며, 다문화 사회의 건설과, 문화적인 발전을 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에서 미국에 10-Thousand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고등학교에 한국어를 개설하라는 본 취지와 같은 것이다. 한국어를 미국의 고등학교에 AP(advanced Placement)로 채택하도록 하는 운동인 것이다. 미국에는 고등학교에서 수학한 것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한국어를 이러한 정규과목으로 개설하게 하려는 것이다. 참고로 덧붙일 것은 일본어의 AP프로그램은 2006년에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사실은 미합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일본어교육 관계자들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嶋津, 2010). 미국의 AP는 특수한 경우이고, 대부분의 국가는 그냥 제1, 또는 제2 외국어로 개설하게 된다. 공교육에서의 외국어 선택은 개인 아닌, 국가가 많이 관여한다. 우선 국익(國益)을 위해 외국어를 선택하고, 친화, 소통, 문화적 관계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따라서 한국어 교과를 외국의 중등학교에 개설하려면 상대국과의 이러한 관계를 연구하여 상호간의 긴밀성을 강조함으로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에서 이 일을 관장하므로 이에도 유의하여 대처할 일이다. 그리고 여기 덧붙일 것은 미국의 SAT, 호주의 HSC(High School Certificate), 일본의 센터시험 등 대학 입학시험에도 한국어가 채택되도록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어 보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재외동포(在外同胞)를 한국어 세계화의 역군으로 적극 활용한다.

재외동포는 흔히 한국 언어문화의 교육 대상으로만 생각한다.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재외동포는 한국어 세계화의 더할 수 없는 인적 자원이다. 이방(異邦)에 있는 한국어 교사요, 한국 문화다. 따라서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나라의 국민은 이들을 접하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한국 언어문화를 접하는 것이 되고, 한국 언어문화의 교류와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좀 과장된 표현을 한다면 이들은 한국의 문화사절이라 해도 좋다. 우리는 7,000만 문화사절을 해외의 75개국에 파송하고 있는 셈이다.

재외동포 가운데는 직접 한국어 세계화에 투신하여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

수 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글학교 등에서 한국 언어·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분들과, 중국·미국·독립국가연합 등의 대학에서 한국 언어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동포들이 그들이다. 이분들은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다.

많은 우리 재외동포들이 이런 고마운 한국어 세계화의 역군이 되어야 한다. 이들은 이중언어(二重言語) 사용이 가능한 사람들이고, 따로 고국에서 파송해야 할 번거로움도 필요 없는 분들이다. 그리고 민족적인 사업이니 다른 사람에 비해 사명감도 남다를 것이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거주국의 문화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라 조화를 이룰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어 세계화의 역군으로 안성맞춤인 자원들이다. 이런 인재들을 오늘날까지 활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우리 민족 문화 발전 및 선양(宣揚)의 면에서 큰 손실을 본 것이라 하겠다. 문제는 이들이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정책을 세우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세계화재단과 같은 기구에서 현지의 동포 사회와 협의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 조직과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고, 이 기구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후원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켜 잘 운영한다면 한국어 세계화는 현지주도로 보다 잘, 그리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현지의 원주민과 우리 동포들 사이에도 이해와 우호의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재외동포에 의한 현지인들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현지인에 의한 우리 동포에 대한 현지어의 상호 교육은 이미 프랑스의 파리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175개국에 나가 살고 있는 자원인사 700만 동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할 일이다.

넷째, 한국어를 다른 한류 문화(韓流文化)와 연대하여 보급하도록 한다.

한류 문화는 드라마로 시작해 K팝을 거쳐, 한식(韓食)과 한국어를 지나 이젠 한국 식 라이프스타일을 총망라하는 “한류 4.0” 버전까지 나왔다고 한다. 과연 “한류”라면서 동안 “대장금” 등 드라마 이야기가 뉴스거리가 되더니 요사이 K팝, 한식 이야기가 화제다. 드라마나 K팝은 언어문화, 곧 언어에 의한 문화다. 따라서 이들은 말을 모르는 한 그 예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드라마나 K팝을 제대로 즐기려면 한국어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들 똬은 한국어를 배우려 하고, 한국어 학습의 바람도 불어 한국어가 한류의 한 단계를 차지하는 것으로 까지 본다. 확실히 그런 경향을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한류문화와 한국어를 연대하여 보급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수·학습 현장

에서는 실제로 드라마 대본과 노래를 통해 언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다. 우리말 가사에 역사(譯詞)를 붙임은 물론, 우리말 가사를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 우리말을 익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음악을 즐기면서 한국어는 덤으로 배우게 되니 일석이조가 된다. 드라마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드라마 대본을 학습지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덧붙일 것은 또 하나의 한류라 할 태권도와 한국어의 연대다. 태권도는 우리의 전통적 무예다. 이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고, 정신적 교육목적이 예(禮)에 있어 사회적으로 사랑을 받는 우리 문화다. 정서가 불안한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선도하고 인격적으로 바로잡아주기 때문에 서구인에게 인기가 있다. 이런 태권도가 오늘날 192개국에 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인구가 7,000만이라 한다. 그런데 이 태권도의 용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 교수·학습상 주목된다. 언어는 문화의 색인이라 하거니와, 무슨 소린지도 모를 소릴 듣고 무예를 익히는 보다 지시 내용을 알고 학습하는 것이 기량이나, 흥미 면에서 몇 배의 효과를 거두게 할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태권도를 보급하며 한국어교육을 같이 하는 것이다. 우선 구령이나 기술 용어부터 익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예를 닦으며, 역시 한국어는 덤으로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한류문화와 한국어교육을 연대하여 교수·학습하게 하면 한국어 세계화를 좀 더 잘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무예와 한국어교육이 만나 상승효과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다섯째, 언어문화의 충격에 대한 완화 조치를 강구한다.

사람들은 이문화(異文化)를 체험하게 되면 문화충격을 받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이문화에 적응하려 한다. 개인 안에서의 문화 수용은 문화충격에 적응하려는 적어도 두 형태의 가설이 있다. 그 하나가 G. Hofstede의 U형 문화변용 곡선이고, 다른 하나가 이의 변형이라 할 W형 문화변용 곡선이다. 사람들은 문화충격을 받은 뒤 밀월기, 문화충격기, 조정기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다.

언어문화의 충격에 대한 적응도 이러한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문화의 경우는 이러한 적응과정을 겪기 전에 다소간의 완화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학습에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기 어려운 언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어는 학습의 선호의 대상에서 열외가 되기 십성이다.

우리는 색다른 문화를 접할 때 신기해하고, 호기심을 느낀다. 언어도 학습하기 어려운 것이라기보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언어로 학습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를 언어 자체로서보다 문화로 포장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다. 사실 언어교육은 언어자질 위주의 정확한 언어교육보다, 언어문화의 자질을 강조하는 적격(適格)의 언어문화 교육이 좀 더 바람직하다. 문법적으로 정확한 표현보다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적격의 표현이 더 필요한 것이다.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이런 언어문화교육을 해야 한다.

언어문화교육은 언어의 구조적인 면과 운용적인 면이 있다. 언어의 구조적인 면에서는 어휘, 호칭, 대우법, 관용어, 통사구조 등이 주요 교수·학습 대상이 될 것이다. 이 가운데 어휘, 호칭, 대우법이 좀 더 문화와 관련된다면 관용어, 통사구조는 사고와 관련된다. 따라서 이들의 교육을 먼저 문화 또는 사고와 관련하여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휘의 경우 영어에서는 “eat, drink, smoke”라 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다 “먹다”라고 종합적으로 말할 수 있다든가, 영어에서는 “rice” 하나로 나타내는 것을 한국어에서는 “쌀, 벼, 밥”이라 분석적으로 나타낸다고 일러 주어 흥미를 자아내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대우법은 한국의 대표적 언어적 특성으로 존장비유(尊長卑幼)의 사상에 연유한다고 설명해 줌으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억지 춘향이”와 같은 관용어는 춘향전의 배경을 일러 준다. 통사구조는 단순한 문법 형식이 아니다. 이는 사고방식이다. 발상의 형식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상의 차이는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문화로서 풀어 설명하면 충격을 줄이고, 쉽게 이해하게 된다.

운용적인 면에서는 앞에서 든 호칭과 대우법, 통사구조 외에 장면 의존도, 문화변용규칙, 비유 등이 학습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어는 대표적인 고문맥적 문화의 언어이다. 따라서 서구의 저문맥적 문화의 언어는 이에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May I ask you a favor?”는 “부탁 좀 해도 될까?”와 같이 겉치레를 다 털어내야 한다. 그리고 문화변용(文化變容) 규칙은 한국어에는 겸손지향, 집단지향, 형식지향, 조화지향, 비관지향, 긴장지향 등의 변용규칙이 작용한다. 이에 대한 적응도 학습돼야 한다. “Thank you!”라 말할 자리에 “미안합니다!”라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문화충격에 대한 완화 조치를 취하게 되면 한결 언어교육은 수월해진다. 이러한 조치 없이 직접 언어 자질에 부딪치게 되면 충격만이 커진다. 완화 조치는 교실에서 언어 사실에 부딪치기 전에 행해져야 한다. 이는 교수·학습의 형태로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다. 여하튼 언어학습의 거부 아닌 친근(親近)의 제스처로 다가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 부기할 것은 이

러한 완화조치 이전에 한국어를 세계화함에 있어 각국 언어와 한국어의 대조연구가  
피해져 이것이 한국어교육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학계가 다 같이  
노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다.

## 5. 결어

오늘날은 국제화 시대요, 세계화 시대이며, 다문화 시대다. 따라서 내 나라, 내 민  
족, 그리고 고유문화만을 고집하며 살 수는 없는 시대다. 상호간에 문화를 교류하며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제 겨우 한국어 세계화의 날갯짓을 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어의 세계화  
는 호혜성을 전제로 언어문화를 교류함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친선을 도모하고,  
다문화사회에서 공존공영하자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남의 문화 혜택을 적지  
않게 받은 민족이다.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제 지난날의 문화의 빚을 갚고, 수  
혜(受惠) 아닌 시혜(施惠)를 함으로 세계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언어문화의  
상호교류를 통해 다문화사회에 기여하고,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간 별반 한국어 세계화 정책을 펴지 못했다. 2007년 이래 세종학당 계획  
을 추진하며 약간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어 세계화는 여러 가지로 추진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일단 기존의 방법을 접어 두고 몇 가지 새로운 추진 방안을 제시  
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핵심적 방안이라 할 것들이다.

첫째, 해외의 교육정책(教育政策)에 대응하여 적극적 조치를 강구한다.

둘째, 해외의 중·고등학교(中高等學校)에 대한 한국어교육 정책을 강력히 추진  
한다.

셋째, 재외동포(在外同胞)를 한국어 세계화의 역군으로 적극 활용한다.

넷째, 한국어를 다른 한류 문화(韓流文化)와 연대하여 보급하도록 한다.

다섯째, 언어문화의 충격에 대한 완화 조치를 강구한다.

“한류”에 역풍이 불듯, 한국어를 세계화함에 있어서도 역풍이 불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경우 자문화중심주의(自文化中心主義)를 버리고 다문화사회의 관용과 포

용과 양보의 정신으로 차분히 대처해야 하겠다. 단일민족, 고유문화의 울타리 속에 갇혀 산 우리는 너무 폐쇄적이고, 관용정신이 부족하다. “열린 마음(International mind)”을 가져야 한다. 다민족 국가, 다문화 사회의 포용정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세계화는 교류하는 것이고, 공유하는 것이다.(\*)

#### ■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2007), 2007 세종학당 백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08), 한국어교육 국내외 웹사이트, 가삼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2007), 세종학당 운영 길잡이,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  
 박갑수(2005),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성찰, 서울대학교 출판부  
 하영선 외(2000), 국제화와 세계화, 한국·중국·일본, 집문당  
 한국국제교류재단(2007),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梅棹忠夫(1988), 日本と日本文明, くもん出版  
 嶋津拓(2010), 言語政策として“日本語の普及”はどうあつたか- 國際文化交流の周縁, ひつじ書房  
 박갑수(2010), 한국어 세계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교육연구 제5호,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  
 연구소  
 박갑수(2010), 한국어의 세계화와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연구, 14,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지도  
 자과정  
 서아정(2004), 해외 각급학교별 KFL 교육현황,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1차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이상규(2008), 한국어 세계화 어디까지 왔나, 새국어생활, 제18권 제13호, 국립국어원  
 최용기(2008),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세종학당 운영방향, 다중의 시대, 언어소통기획,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박갑수 교수

(현)서울대 명예교수  
 (현)한국문화국제운동본부 연구위원장  
 (현)한국어세계화총연합 이사장  
 이중언어학회 회장 역임

## 『한국어의 세계화, 그 실상과 새로운 추진 방안』에 대한 논평

최 상 현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의 위상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신장,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결혼 이주민의 증가로 한국어를 배우고자하는 외국인 수요층이 늘어나고, 특히 근래에는 케이팝(K-pop) 등 신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어 학습수요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국제문화교류운동본부가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한국어 세계화 방안에 대한 학술토론회를 갖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시의 적절한 활동으로 여겨 집니다.

우리 정부가 현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보급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지는 오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정책은 주로 재외국민, 동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재외 한국학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해외 현지 교육기관은 「재외국민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하고,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동포중심 교육에 따라 이러한 교육기관들은 해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주, 일본지역에 주로 집중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재외 한국문화원을 거점으로 활용한 세종학당이 재외동포 중심의 교육이 아

나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한국어 보급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박갑수 교수님께서 발표문에서 한국어 세계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짚어 주셨지만, 정부 정책 수립과 시행 담당자로서 세종학당 중심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 전략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부에서는 외국인들이 ‘어디서든 쉽게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지향하면서 한국어 보급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습자의 접근성 확대 계획입니다.

최근 프랑스나 영국의 세종학당 신청자가 정원의 2배를 넘어서는 등 신한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세종학당 개설과 함께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지에서 미리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 증가로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등 인력 송출국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한 세종학당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60개 지역에 지정된 세종학당을 금년도 30곳을 추가로 개설하여, 총 9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누리-세종학당’에 한국어 강좌를 탑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세종 한국문화 강좌’, ‘세종학당 초급 강좌’ 등 교실을 운영하여 세계 어디에서나 쉽게 한국어 강좌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종학당 등 해외 20개 지역에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선발 파견하여 현지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지인이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원양성과정 운영을 확대(200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세종학당 표준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교수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개별 세종학당별로 교육과정이 제각각 운영되어 세종학당 교육의 표준적인 질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 지난해 세종학당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전체 세종

학당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브리티시 카운슬이나 괴테 인스티튜트 등 해외 우수 자국어 보급기관처럼 단계별로 체계화된 언어 교육이 이루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누리-세종학당’에 ‘한국어교육 디지털 자료관’을 구축하여 해외 교원들에게 동영상, 사진 등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자료들을 자료관에 올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생생한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넷째, 전세계 세종학당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공신력 있는 기관(가칭 ‘세종학당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설치 확대와 함께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영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처럼 자국어 보급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관리해 나갈 공적 기관이 절실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수강생들이 케이 팝 한류의 진원지가 되는가 하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한국사랑 동아리 한국 클럽(Korea Club)이나 터키 앙카라의 코레팬즈(Korea Fans) 등도 세종학당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습은 한류의 시작이자 종착점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 한국 문화원을 거점으로 문화교류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한국어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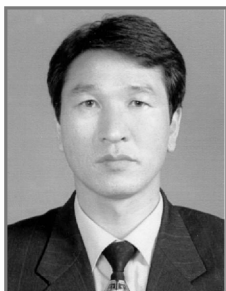
박교수님 발표문에서 제시한 “해외의 교육정책에 대응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한국어를 다른 한류문화와 연대하여 보급”, “언어 문화의 충격에 대한 완화조치” 등의 제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고, 자국 언어의 해외 보급정책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해외의 교육정책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의 한국어 해외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대 정부 간의 외교적인 문제나 해당 국가나 지역의 교육 정책의 특수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어 보급 사업이 현지의 특수성에 맞게 안착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선순환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거시적인

고 종합적인 비전에 근거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어를 해외에 보급함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정부 역할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어떠해야 하는 지 등은 한국어 해외 보급 과정에서 정부와 학계, 민간단체 등이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상현 과장

(현)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  
(전)문화부 생활체육과장  
(전)문화부 저작권보호과장

## 『한국어의 세계화, 그 실상과 새로운 추진 방안』에 대한 논평

진 대 연 호원대 한국어학과 교수

2012년 현재 우리는 해외여행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자가용으로 넘치는 거리에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40여 년 전 박갑수 교수님 세대의 젊은 시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겠지만 지금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두가 우리 앞 세대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실현된 것입니다. 그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 발표에서는 한국어의 생존과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한 언어문화 교류와 세계화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한국어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동안 미처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한국어 세계화의 핵심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한국어의 세계화 정책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화의 개념부터 알아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우리의 한국어 세계화는 어떤 사실의 지리적 공간 확대로서의 지구화를 의미함을 짚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되어 왔던 한국어 세계화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실현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게 된 우리들에게는 다소 아픈 말씀으로 “그간 한국어 세계화 정책은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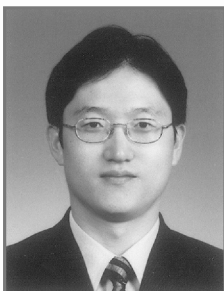
로 수립되지 않았다. 수립된 것이 있다 해도 별로 드러나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과거의 토대 위에 미래의 발전을 지향해야 하는 현 시점에 꼭 필요한 반성을 주문하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도 저간의 상황에 대한 평가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정하신 세종학당 계획이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고 국내외의 다방면에서 한국어 세계화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대부분이 인정할 만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어 세계화의 실상’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 기구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외국 대학 등에서의 한국어 교육으로 나누어 살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어 교육은 바야흐로 전성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만하다.”라고 하시면서 현재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미래의 과포화 상태를 부를 만큼 큰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도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한국어 교육 관련자의 하나로서 저도 그런 낙관과 비관을 동시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최근에 보이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세의 완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의 우리에게 박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다음의 다섯 가지 추진 방안은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 첫째, 해외의 교육정책에 대응하여 적극적 조치를 강구한다.
- 둘째, 해외의 중·고등학교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 셋째, 재외동포를 한국어 세계화의 역군으로 적극 활용한다.
- 넷째, 한국어를 다른 한류 문화와 연대하여 보급하도록 한다.
- 다섯째, 언어문화의 충격에 대한 완화 조치를 강구한다.

그런데 위의 제안들은 구체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방향의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현실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적인 추진 동력들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제2차 국어발전 기본계획에서도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리말 위상 강화’라는 추진 과제를 설정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의 세부 과제를 찾아 집단 지성과 경험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국문화 국제교류 운동은 단순히 수혜(受惠)나 시혜(施惠)가 아닌 호혜(互惠)의 원칙에 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며 토론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대연 교수

(현)호원대 한국어학과 교수  
(현) 호원대학교 한국어교육원장 / 국제교류교육센터 부센터장  
(전) 한국어세계화재단 책임연구원  
(전)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주임강사

#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1주년 기념 포럼

## [ 태권도 ] 주제 I

### 태권도 강국을 태권도 선진국으로

발 제\_ 송 종 국 경희대 태권도학과 교수, 본회 운영위원

토 론\_ 김 하 영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 태권도 ] 주제 II

### 세계화에 적합한 태권도 철학 및 정신 구축

발 제\_ 이 경 명 태권도 문화연구소 소장

토 론\_ 하 피 터 경희대 체육대학원 교수



## 태권도 강국을 태권도 선진국으로

송 중 국 경희대 태권도학과 교수, 본회 운영위원

### 서언

태권도는 우리나라,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자산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찬란한 문화를 잘 가꾸고 전승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인 것이다. 지금까지 태권도는 세계적인 스포츠와 무도로서 급성장을 거듭해 왔고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어를 통해 몸으로 직접 부딪치면서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일깨워 주었다. 특히 2000년 호주 시드니, 2004년 그리스 아테네,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획득한 총 메달 수는 12개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효자 종목으로 태권도 강국임에 틀림이 없다. 한편 이와 같은 태권도 경기화가 기술적으로 세계화의 밑거름이 되었지만 최근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태권도 세계화의 정체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의 현황과 올림픽에서 태권도의 영구 정착, 그리고 글로벌 리더양성을 위한 태권도 교육 등을 분석하여 세계적, 보편적 기준에 걸맞은 태권도 정책과 문화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1. 태권도의 현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이자 브랜드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이다. 1997년 김치, 한복, 불국사 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상징물로 선정된 태권도는 이제 단순히 스포츠를 떠나 문화·교육·관광·평화·건강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권도의 가치를 문화·산업화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해 오고 있다.

2012년 현재 세계태권도연맹에는 각 대륙별로 아프리카 45개국, 아시아 43개국, 유럽 49개국, 오세아니아 19개국, 팬아메리카 44개국을 포함한 총 200개의 회원국이 소속되어 있으며, 수련생은 약 1억 명에 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50여개의 대학에서 태권도학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약 200만 명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2008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태권도 진흥을 위해 2013년까지 5년 동안 3,185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해 태권도 문화산업과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의문시 되고 있다. 즉 태권도를 진흥시키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와 구호만 있을 뿐 정작 태권도 현장에서는 실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그런 것일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간과해서 안 될 것은 태권도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관련 기관의 기능과 역량 등 업무 추진능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태권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전문가들의 발전적인 제안이 채택되지 않고 있다.

몇몇 제도권 인사들과 실무자들의 시각과 판단이 정책 결정을 좌우해 좋은 대안을 내놓아도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집행과정에서 흐지부지 처리되는 현실을 보고 있으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관광객들을 위한 상설 태권도 공연 사업, 국제협력단의 태권도사범 해외 파견, 외국 태권도 지도자와 선수들의 초청 교육사업, 월드투어 태권도시범문화공연과 세계태권도평화봉사단 활동 등은 여러 나라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물론 호응을 얻지 못해 실패한 정책과 사업들도 있다. 예를 들면 태권도 정책사업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태권도 정책과 사업을 누가, 어느 단체에서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냐 하는 점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 속에 추진되는 태권도 정책사업의 주체는 태권도 단체가 아닌 실질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고 향유하고 있는 태권도 인들인 것이다. 일선 태권도

인들이 객체나 주변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가칭 ‘태권도사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로드맵을 작성하고 순차적이고 계획성 있게 태권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엘리트 위주에서 탈피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태권도 콘텐츠를 개발하고 남녀 청소년, 성인과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태권도의 잠재적 수요 시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태권도 기관들은 각 단체가 지향하고 있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또 연계하고 상호 보완할 것은 없는지 조언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된다. 태권도 정책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태권도사업특별위원회’는 태권도 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지 정확히 분석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에 맞는 콘텐츠를 연구하고 개발해 세계에 보급함으로써 태권도종주국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태권도를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제 기득권에 안주하며 이해득실과 인맥에 따라 태권도 정책 사업이 좌지우지되는 탁상행정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진정 태권도 진흥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제도권 관계자들이 많아져야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태권도 정책 사업이 좋은 결실을 거둘 것이다. 태권도 제도권과 관련 단체들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

## 2. 올림픽에서 태권도의 자리매김

지난 해 늦가을,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 관련 4개 단체장들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태권도의 올림픽 핵심 종목 유지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한국이 종주국이며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인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계속 남는 것이 국가 이미지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자리라고 볼 수 있다. 또 단체장들은 세계태권도연맹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의 올림픽 스포츠인 태권도를 관장하는 국제스포츠연맹(IF)으로서 고유한 행정의 독자성은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 업무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이를 위해 국내 태권도계가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긴밀히 협력해 각 단체별 자체 태권도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 2013년 IOC가 결정하는 25개 핵심종목 결정에 태권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IOC는 2013년 9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에서 2020년 올림픽 공식 프로그램에 들어갈 종목을 최종 결정하면서 2012년 런던올림픽 26개 종목 가운데 하나를 제외한 핵심종목(core sports) 25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핵심종목 25개는 일괄적으로 IOC 총회에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올림픽 공식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돼 더 이상 올림픽 종목 탈락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 수는 현재 200개로서 런던올림픽 26개 종목 중 6위에 해당되며, 주요 대회에서 25개 정도의 국가가 메달을 가져가 고른 메달 분포를 보여줘 많은 국가들이 올림픽 전략 종목으로 태권도를 육성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는 총 64개 국가가 참가하여 22개 국가가 한 개 이상의 메달을 차지하였다. 지난 5월 경주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이란이 남자 종합 우승을 차지하여 사상 최초로 종합우승을 한국이 아닌 외국이 차지했다. 이는 태권도가 더 이상 한국이 독점하는 종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이에 앞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종합 우승은 한국이 아닌 중국이 차지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세계태권도연맹과 태권도의 국제스포츠계 이미지 강화를 위해 2008년 태권도평화봉사단을 발족시켜 여름, 겨울 방학을 이용해 대학생들을 태권도 저개발국에게 파견해왔다.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520여 명의 대학생들이 약 70개국에서 태권도 봉사 활동을 하였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했던가! 세계태권도연맹은 지난 2004년 말부터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제 남은 것은 오는 8월 런던올림픽 태권도 경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 3. 올림픽이 태권도의 전부인가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어 4체급 금메달이라는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룬 우리 태권도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태권도라는 하나의 고유한 무도를 국제적인 자랑거리로 치켜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올림픽에서 이렇게 위대한 성과를 이룬 우리 문화 태권도에 감히 ‘위태로운’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한다면 어떻겠는가? 수많은 지탄이 날아들지 모르겠지만 태권도와 또 그 태권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후대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일이기에, 지금은 ‘위태로운’ 태권도를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라 말하고 싶다.

태권도가 올림픽의 효자종목,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이 보기 좋고 그럴듯한 문화로만 비치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태권도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 찬란한 영광을 가진 선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순수하게 노력하는 선수들도 있으며, 그들의 금빛 환희 뒤에 눈물과 좌절 또한 숨어 있다. 대한민국 내의 일만 이천 개의 도장들, 그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태권도의 가치부재로 고민하고 줄어드는 관원생의 숫자에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도 돌아켜볼 시기이다. 승리의 환호보다 태권도 경기가 재미없어 단 한 명의 관객도 없는 경기장을 한 번 돌아볼 시기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힘든 생활 속에서 올림픽의 선전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것이 바로 스포츠의 힘이다. 올림픽 금메달은 중요하다. 그 언젠가 대통령의 말처럼 경제도 정치도 어느 분야도 해내지 못한 세계 7위를 이루게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 영광과 감격은 수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들이라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메달의 색깔이 아니라 메달을 어떻게 따느냐는 것이다. 수천 명의 선수들이 진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꿈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다. 과정이야 어찌 됐던 금메달만 따면 된다고 생각하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당하게 이기고 정당한 승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꿈을 잃을 것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권도에 대한 소중한 가치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 4. 태권도학과의 방향

태권도의 지속적인 성장은 태권도 지도자의 역할과 태권도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태권도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은 유능한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태권도 제도권이 시대흐름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뤄진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0여 개가 넘는 2~4년제 태권도 관련 학과가 있다. 태권도 전공생만 해도 15,000여 명에 이르고 해마다 2,000명이 넘는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태권도 시장과 규모를 고려하면 너무 많은 태권도 전공자가 배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적지 않은 전공자들이 태권도 전문분야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졸업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술동아리에서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 150명 중 40%가 태권도 이외의 직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권도 관련 직업을 원하지 않는 요인으로 태권도가 적성에 맞지 않다거나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35%나 돼 졸업도 하기 전에 태권도에 염증을 느끼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젊고 유능한 인재들에게 태권도 지도자는 더 이상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태권도 교과과정이 미흡하다. 둘째, 태권도 전문 분야에 진출해도 경쟁력이 없다. 셋째,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돕는 특별한 제도권 시스템이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전공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장경영이나 기업을 세우고 크게 성공한 롤 모델이 거의 없다. 넷째, 해외의 한인 지도자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존경을 받고 있는 데 반해 국내의 지도자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상을 갖거나 존경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풍족하지 못한 지도자들의 삶의 질도 젊은 인재들을 태권도 전공분야로 이끌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간단한 해결책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첫째, 1·2차 교육기관의 확대와 함께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좀 더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육교사들이 태권도 분야를 더욱 잘 알고 즐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태권도 지도자 중 훌륭한 자질을 갖춘 이들이 초·중·고에 진출하여 태권도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도입해야 한다. 둘째, 태권도 제도권은 태권도 전공자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경쟁력이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라이선싱(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에 관한 권리이용 계약) 정책 아래 지도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태권도 관련기업을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태권도 전공자들을 위한 재원 지원이 정책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전공자들의 해외 진출의 진로를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태권도학과는 기초 어학 분야의 질을 강화시키고, 태권도 제도권은 제도 개혁을 강구해 새로운 태권도 산업의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또 창조적인 교육과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각 대학은 태권도 제도권과 협력해야 하고, 동시에 제도권은 그들의 성장에 공헌한 대학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등 생산적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더 많은 인재들이

태권도계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지난 50년간 우리 태권도가 향유했던 성장을 이어가 태권도의 르네상스 시대를 마련할 것이다.

## 5. 태권도 교육을 통한 글로벌 리더 양성

태권도를 통해 ‘금메달’을 꿈꾸며 도전하여 성취하는 사람에게는 ‘금메달’이 곧 명품 태권도로 명품 인생을 살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고, ‘금메달’이 아닌 자신만의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꿈이 곧 금메달이 되어 명품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태권도장 경영의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태권도가 되기 위해서는 태권도가 담고 있는 교육적 가치가 인간적 삶에 깊숙이 연결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태권도로 거듭날 때 비로소 명품인생을 만들어 가는 명품 태권도로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운동과 공부의 상호 관계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운동하면 공부 못 한다’라는 인식으로 공부와 운동을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로 인식되어 왔다. 태권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에 “태권도하면 깡패 된다.”라고 하며 부모님들의 반대가 심했던 것도 그 당시 태권도(운동)에 대한 국민적 인식수준을 말해 주고 있다. 태권도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적 의식 수준이 향상되면서 자녀를 둔 부모들의 교육 열의가 높아지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신감을 키운다는 단순한 목적으로 태권도장을 방문하면서부터 태권도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는 G20 정상회의를 주관할 만큼의 경제성장과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질 높은 삶의 욕구가 커지면서 ‘웰빙 시대’라 할 만큼 운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공부와 운동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국가의 교육정책에도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제는 운동과 공부를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에서 수평적 사고의 틀로 해석하기 시작 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학교 체육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이 발표될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기대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태권도는 10년 전부터 도장 경영악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미래 또한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냉정한 분석이다. 한 때 정부에서 방과 후 태권도 교육 시행에 대한 반대를 한 우리 태권도

인들은 이번 체육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 발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학부모들의 마음은 어디로 움직일까? 우리 함께 고민해야 한다. 현 수련생들의 학부모들과 지역 내 잠재 고객들에게 태권도와 공부를 통합하여 태권도를 가지고 공부를, 즉 태권도를 통해 자녀들이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공부(생활태도)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태권도 수련을 열심히 할수록 태권도도 잘하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의 생활태도도 향상 될 수 있게 하는 태권도장으로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태권도의 ‘앞 돌려차기’를 잘하는 수련생은 가정에서 ‘버릇없는 말에서 예의 바른 말’로 말을 돌려할 줄 알게 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회에서 성인이 되어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서도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말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태도를 몸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결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태권도장경영의 미래는 태권도의 본질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에 핵심이 있다는 것이다. 미래를 향해 지르고, 찌르고, 막고, 치고, 돌려 차게 하는 태권도로 거듭 날 때 진정한 명품인생을 만들어 가는 명품 태권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6. 태권도의 미래

아시아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인도의 시성 타고르(1929. 4. 2. 동아일보)는 「동방의 등불」에서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찬란한 빛이 되리라” 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태권도가 세계에 밝게 비취질 등불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태권도가 우리의 민족문화 유산 중 가장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있어서 모두가 열망하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더불어 행복한 삶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요소인 올바른 인격형성을 육성하는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세계의 여러 저명인사들에 의해 인정된 바 있다. 그 예로 미국 27개주의 교육 행정을 지휘 감독하는 기관인 E.S.C.I(Educational Service Consortium Incorporated) 회장인 William R. Synder 박사는 자녀들이 태권도를 배운 이후로 보인 놀라운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것은 망나니였던 자녀가 도덕적으로 예절바르며,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겠다는 올바른 의지가 생

긴 것으로 태권도 수련이 아니면 미국 사회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하며, 지극히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태권도의 그러한 이데올로기들이 미국의 청교도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는 것 같다. 또 학생들의 리더십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성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1971년 11월 12일에 미국 의회에서 한 상원의원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태권도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하자는 정책 제안을 했다는 것이 의회 기록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또한 미국의 여러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수많은 저명인사들이 태권도를 수련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는 인터뷰 기사가 수없이 많지만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자신들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건강 증진과 호신의 능력 향상은 물론 용기와 자신감 넘치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 결 같이 태권도의 가치성을 격찬하고 있다. 전설적인 무술 배우였던 이소룡은 홍콩 TV와의 대담에서 준 리 사범에게서 태권도 발차기 기술을 배우지 않았다면 결코 유명 스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의 자서전에서는 “공격력이나 연속 기술에서도 태권도 이상의 기술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복싱 영웅 무하마드 알리와 레너드, 헐리웃의 액션스타 척 노리스, 토마스 폴리 전 하원의장, 스페인의 카를로스 국왕, 미국의 빌 클린턴과 부시,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중동 여러 나라의 왕세자 등 세계 각국의 수많은 정치인과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한국의 혼이 담긴 태권도를 수련해 왔음을 볼 때, 우리는 그 가치성을 한층 더 높게 인식하며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냉정한 사회 현실 앞에서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태권도 정신은 단순히 육체의 단련은 물론 현실 사회에서 윗사람에게 예의바르고 친절하며, 아랫사람에게는 너그럽고 겸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생활태도를 모든 수련생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송 중 국 교수

(현)경희대 태권도학과 교수  
(현)한국문화국제운동본부 운영위원  
(현)경희대학교 체육영재센터장  
(전)세계태권도연맹 기획실장

## 『태권도 강국에서 태권도 선진국으로』에 대한 논평

김 하 영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브랜드이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세계인이 공유하는 대표 스포츠이며 무도이다.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은 200개 국가로 스포츠 종목에서 10위권 이내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저력과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50여개 대학의 태권도학과 설치 운영하여 학문적, 교육적으로 스포츠의 많은 종목의 귀감이 되는 방향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적 정책에서도 나눔, 봉사, 배려, 존중, 기여, 재능기부를 지구촌에 널리 알리고 함께하고자 월드투어 태권도 시범문화공연활동과 세계태권도연맹의 세계태권도평화봉사단 파견 활동은 여러 나라의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태권도 성장 동력의 한 축을 이어가며 세계태권도평화봉사단에서 세계스포츠평화봉사단으로 이어가는 롤 모델을 제시하여 올림픽이념이 평화이듯 태권도의 평화정신은 그대로 이어가는 깊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문화, 교육 콘텐츠는 태권도 종주국이 개발과 보급을 이어가야 할 역할이다.

올림픽에서 태권도 핵심종목으로 유지되는 것은 글로벌 태권도의 소통과 공감이며, 올림픽이 추구하는 이념과 사상 그리고 정신적 일치를 유지하고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며 국가별 스포츠 경쟁력과 이미지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또한, 올림픽 참가국의 대륙별 태권도 강국이 육성되면서 세계적 수준이 평준화 되고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각 국가의 메달리스트는 국위선양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 2008베이징 올림픽에서 총 64개국 참가 22개 국가 메달리스트의 육성은 자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하며 국민에게는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 역할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태권도연맹 200개의 회원국이 수준 높은 경쟁력 유지와 태권도 저변 확대를 강국으로 거듭나는 기회제공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올림픽 태권도 종목으로의 가치는 글로벌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태권도 리더십 지도자가 사회 변화에도 기여하는 정신적인 메시지가 매우 크다.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무도로써 스포츠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며 올림픽에서 보여주는 태권도의 정신과 본연의 역할은 올림픽에서도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올림픽에서 태권도 종목은 세계 200개 회원국의 약 7,000만명(추정) 수련생의 꿈과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가기도 하며 국민에게 주는 넘치는 에너지와 영향력의 가치가 있다. 국가별 경쟁력 향상, 세계태권도연맹의 공정성과 거시적 플랜, 종주국의 태권도글로벌 마인드플랜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의 단일 학문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매김한 국내 50여개 대학 2~4년제 태권도학과는 매년 2,000여명의 졸업생 배출은 물론, 해외수련생이 태권도학문의 관심으로 유학을 오고 국가별 프로젝트로 태권도 사관학교의 플랜은 상당히 진보적이고 긍정적 방향으로 해외진로 개척 및 인재배출의 육성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교과과정을 비롯한 제도적 여건과, 학문적 시스템은 더 보완하며 정책적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태권도 학과의 방향은 미래의 태권도방향과 같은 글로벌 인재육성과 개발, 교육의 보편화 및 선진화, 해외진로 개척으로 태권도 평준화 및 보급화의 기여, 태권도 정책의 국내 및 국제적 시각에서 환경마련, 국제 태권도 인프라 네트워크의 관리시스템을 갖추며 각 국가의 태권도 강국으로 거듭나는 교육, 문화, 사회, 경제 기반과 협력하는 플랜을 제시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동방의 등불이며 민족의 혼이 있는 태권도는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으며 세계스포츠로 성장하여 세계인에게 주는 선물과 같다. 대한민국의 성장기반은 교육의 역할이 매우 높다. 우리가 물려받은 땅은 작고 자원은 많지 않으나, 우리에게

는 무한한 두뇌와 지극정성의 교육마인드를 갖고 있다. 태권도의 성장 동력 유지 또한 중심적인 교육마인드를 통해 태권도 본연의 본질을 유지하는 정신, 의식, 몸과 마음수련의 전통을 계승 발전하면서 스포츠의 위상에 걸 맞는 맞춤형 교육시스템과 제자육성 그리고 글로벌 리더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국에서 선진국이 되는 요건을 갖추어 충분한 제도, 방향, 정책, 예산을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서 보급 확대하고 태권도 선진국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 태권도는 이제 강국의 위엄과 기술에서 태권도 선진국의 역사적 전통성 보존과 가치추구를 하며 세계태권도를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에 더 많은 국가에 기술의 전수, 탁월한 훈련방법과 교육시스템을 동반한 인재파견, 각 국가의 엘리트 및 대중화에 기여하는 봉사와 재능기부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발전에 기틀을 제공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지속적인 태권도 기술의 품새, 경기, 시범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와 개발로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과정이 태권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종주국의 중추적 역할이다.



김 하 영 교수

(현)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전) 노던일리노이주립대학교 교수  
 (전) 국기원 WTA 전문교육과정 지문 위원  
 (전) 제주발전연구원 스포츠산업 연구위원

# 세계화에 적합한 태권도철학 및 정신 구축

## - 한글속의 태권도, 주요 원리 중심 -

이 경 명 태권도문화연구소장

### 1. 한국의 CI, 한글과 태권도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이미지 가운데 한글과 태권도가 있다.

정부에서는 1996년에 이미 ‘한국의 문화상징 베스트 10’을 선정한 바 있다. ‘한글’, ‘한복’, ‘김치와 불고기’, ‘인삼’, ‘설악산’, ‘불국사와 석굴암’, ‘탈춤’, ‘종묘 제례악’, ‘태권도’, ‘세계적인 예술인’ 등이 그것이다.

이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의 큰 흐름 속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상을 심어주고자 하는 뜻에서 이뤄진 결과라는 것이다. 한글과 태권도는 우리 문화의 우수함을 세계만방에 전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는 주제가 된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2001년 ‘한국의 문화 이미지 기획전’을 가졌다. 우리의 문화를 바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며, 한글과 태권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한글은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 고유의 독창적인 문화이다.

어려운 한자 사용으로 인해 일반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자를 만든 것이 바로 한글이다.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글자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단순한 한글은 닿소리(자음) 14개와 홀소리(모음) 10개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조합하면 어떤 말도 글로 나타낼 수 있다.

한글이 지닌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는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태권도는 한국에서 창시된 고유한 전통무예로, 국제적으로 널리 공인받아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다. 몸과 마음을 수련하여 인격을 닦는 무예인 태권도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는 고차원적 무예이다.

태권도는 시대상황에 따라 국방의 필요성이 높아지면 무예로 수련되었고, 평화가 지속되면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 왔다. 태권도는 1988년 서울을 립픽에서 시범경기로 채택되었고,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세계적인 스포츠로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다.

- 『한국의 문화 이미지』, 2001:7

태권도가 1994년 파리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2000년 시드니올림픽정식종목으로 채택되자, 국내 언론에서는 많은 찬사가 쏟아졌고, 그 가운데 한글에 대한 찬사도 함께하고 있다. 즉 2000년 시드니올림픽경기에서 우리의 태권도는 우리 말로 구령하며 경기를 진행하게 됨은 실로 우리 문화가 세계인의 정신 속에 깊숙이 파고드는 경사라고 하였다.

이는 한글속의 태권도가 우리말과 인간의 몸짓이 한데 어울리는 동서양의 만남이라는 소통이 그것이다. 백범 김구는 ‘나의 소원’ 중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의 한 구절을 읊기면,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백범일지』 초간본, 1947년 12월 15일)

한글과 태권도는 단지 한국에서 유래한 것에 따른 문화의 한 맥락이라는 차원을 넘어 한글속의 태권도는 그 중심에 우리의 전통사상과 정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이

다. 전통사상이란 우리 배달겨레의 슬기로운 사상을 말한다. 이에 한글과 태권도의 중심을 이루는 전통사상(음양오행)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차례이다.

## 2. 훈민정음 ‘제자해’ 천지자연의 이치 음양오행

훈민정음을 만든 주요 원리는 ‘제자해’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천지자연의 이치는 오직 음양오행뿐이다. 곤괘와 복괘의 사이가 태극이 되고, 움직이고 멎고 한 뒤가 음양이 된다. 무릇 천지자연의 어떤 생물이든 음양을 버리고 어찌 살 수 있는가? 따라서 사람의 말소리도 모두 음양의 이치가 있건마는 생각건대 사람들이 살피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정음을 만든 것도 처음부터 지혜로써 경영하고 힘써 찾아낸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소리에 따라서 그 음양의 이치를 다했을 뿐이다. 이치가 이미 둘이 아닌즉 어찌 천지의 신(귀신)과 더불어 그것을 부러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

세종은 ‘제자해’에서는 천지자연의 이치의 보편성을 첫머리로 삼고 있다. 세종은 문자를 만든 근본 원리는 자연의 이치에서 찾고 있다. 천지자연, 모든 생물,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말소리 모두에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음양오행이다.

음양오행은 음양과 오행의 합성어이다. 음양이란 천지자연에 흐르는 보편 법칙은 특이하고 새로운 곳에 있지 않았다. 동양 사상, 우리가 늘 겪고 있는 삶, 자연 그곳에 있었다. 하루가 밤낮으로 구분되듯 밤(음)이 있으면 낮(양)이 있고, 여성(음)이 있으면 남성(양)이 있다. 하늘에는 해(일)와 달(월)이 우리를 감싸고, 그 밑에는 땅(토)이 당당히 터전을 마련해 준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불(화)과 물(수)과 나무(목)와 쇠(금)가 우리 인간의 삶을 지탱해 주며 자연은 도도히 흐른다. 오행은 천지만물을 이루고 있으면서 온갖 것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다섯 가지 바탕소인 ‘쇠(금), 나무(목), 물(수), 불(화), 흙(토)과 그것이 돌아가는 원리를 말한다. 우리의 삶은 음양오행이라는 주 단위로 매일 생성되고 변화하는 하루 속에서 반복하는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다.

‘제자해’ 첫머리에 나오는 훈민정음의 핵심 원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행은 닿소리(자음)를 만드는 주요 바탕 원리가 되고, 음양은 홀소리

(모음)을 만드는 주요 바탕 원리가 된다. 오행은 크게 상생의 원리와 상극의 원리로 나뉜다. 상생은 서로 어울려 좋은 것이고 상극은 서로 어울려 좋지 않은 것이다. 이 오행의 원리에서 우리는 상극을 버리고 상생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삶의 지혜를 자연에서 얻었다. 우주 삼라만상의 숨겨진 이치는 훈민정음의 소리는 물론 글자 모양에 음양오행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훈민정음은 두 가지를 뜻한다.

첫 번째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글자의 이름으로 그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즉 글’이다. 두 번째는 책의 제목이다. 훈민정음 글자를 직접 만든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훈민정음을 만든 원리와 사용법을 연구하여 상세하게 해례를 붙여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라’고 명을 내렸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명을 받들어 글자가 만들어진 지 3년이 지난 1446년 9월 상순에 집현전 학자들이 펴낸 책이 바로 『훈민정음』이다. 『훈민정음』은 현재 국보 70호로 지정돼 있다. 이 책은 서울에 있는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훈민정음』에 다음과 같이 잘 나와 있다.

“천지의 이치는 오직 음양오행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소리에는 음양의 이치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데 옛 사람들이 이를 살피지 못하였다. 이제 단지 그 말소리에 들어 있는 이치를 극진히 하였을 뿐이다.”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이 있어야 한다.”

“천지 사이에 있는 만물에는 제각기 모양과 소리가 있는데 근본은 둘이 아니므로 이치가 통한다.”

—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

우리는 위의 세 문장에서 알 수 있다. 즉 천지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소리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도 천지 사이에 있으므로 말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의 말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를 만드는 것이므로 글자를 만들 때에는 말소리에 담긴 이치를 따르면 된다. 세종은 사람의 말소리에는 천지의 이치가 모두 갖추어져 있지만 사람들이 그 이치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훈민정음의 글자 모양

은 어떤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가? 여러 원칙이 있는 데 그 가운데 하나는 모음(홀소리)을 나타내는 글자의 모양은 자연을 이루는 천(하늘), 지(땅) 그리고 인(사람) 모양의 특징을 기호화한 것이다. 천지인의 기호화는 점, 선, 면으로 표기되는 기호는 ‘·’ ‘—’ ‘|’ 이다. 이는 하늘소리, 땅소리, 사람소리를 뜻한다.

한글이 만들어질 때, 세종은 이 문자의 이름을 ‘훈민정음’ 이라고 정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글’ 라는 뜻이다. 우리 민족의 글(훈민정음)에 ‘한글’ 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붙여서 사용한 사람은 주시경 선생으로 알려져 있다. 한글이란 말은 ‘한(韓)나라의 글’ 에서 비롯됐다고 하며, 여기서 ‘한’ 은 대한제국을 뜻한다. 한글은 ‘큰 글’ ‘하나의 글’ ‘하늘의 글’ 이란 의미도 담고 있다. 영국의 학자 존맨은 한글을 가리켜 세상의 어떤 문자보다 완벽에 가까운 문자이며 고전적인 예술작품이라고 했다. 또 일본의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野間秀樹)는 『한글의 탄생: 문자라는 기적』(2011)에서 한글이 ‘삶의 혁명을 낳은 문자’ 라 극찬했다. 한글이 세계 언어학자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고안된 문자 체계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한글은 자연의 모든 소리를 담는 글자이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전통문화인 태권도를 살펴볼 차례이다.

### 3. 태권도: 인간 형상화

태권도(跆拳道)는 1996년 12월 정부(문광부)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열 가지 문화 상징 (CI; Culture Images)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었다.

태권도 이름은 ‘인간의 길’ 로 표현된다. 태권도인이란 그 길을 걷는 ‘사람’ 을 말한다. 동양 철학 개념인 성과 명, 체와 용, 음과 양을 인간의 신체에 대립, 설명하자면 태권도는 도가 성이고 태권은 이름이다. 태권은 인간의 몸의 구체적 표현이다. 그것은 세 글자로 구성된 하나의 이름이다. 밝은 태(跆拳道)+주먹 권(拳)+길 도(道)의 합성어이다.

태권도는 도(道)를 모태로 한 손과 발의 쓰임새, 길, 관(觀) 등이 기능성과 심성의 수련에 근원을 두고 있다. 태권도 이름은 ‘태권’ 과 ‘도’ 의 만남에 의해 오늘날 보통 명사가 되었다. 태권도는 태권의 도이다. 이 명칭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징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가장 의미 있는 상징성은 ‘인간’ 이라는 개념이다. 인

간, 즉 사람을 뜻하는 형상의 자구(字句)에서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몸짓”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이경명, 2002)

그 다음으로 또 하나의 형상적 상징이 가능하다. 그것은 태권도 기술 체계의 단위 요소가 되는 ‘동작’ 개념인데, 사람의 몸이 바로 ‘태권도’라는 개념에서 동작을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태’가 의미하는 아래는 ‘서기’를 이루고 ‘권’은 주먹 또는 팔로써 지르기, 치기, 또는 막기를 하게 되고, ‘도’는 내면의 의식을 한곳으로 표출, 집중하는 시선으로서 단위 동작을 생성하게 된다는 상형화적 상징성이 것이다.

태권도에서 모든 동작 개념은 인간의 몸짓이다. 그 몸짓은 의식적이든 또는 무의식적이든 간에 도구적 수단의 인간적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태권이 형이하를 상징한다면 도는 형이상의 개념이다. 형이상으로서 ‘도’의 함의는 심오하다. 태권도는 우리 자신, 즉 사람을 대변하는 이름(날말)이며 태권의 신체적 기능이 도와 만남에서 심성을 기르고 마음 수양을 통해 올바른 인간다움의 길을 지향하는 도덕적 규범이 되고 있다. 막고 지르고 차는 등 다양한 기법적 측면은 그 길잡이가 되는 운동 원리의 법칙성에 따르며 그것은 바른 숨쉬기와 그것을 통해 바른 기운을 배양하게 되며 신체를 강건하게 하는 역동적인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태권도는 ‘인간적, 너무도 인간적 몸짓’이라는 상징성, 그것은 소우주로서의 철학적 행위를 함의한다. 인간은 대우주의 그것을 그대로 축소, 내려 받은 소우주라는 표현은 동서를 막론하고 공유하는 인식이다. 우주란 무엇인가. 동양적 표현에 따르면, 그 대표적인 상징이 하늘땅사람(天地人)삼극이다. 삶, 즉 인간은 땅 위에 직립하고 하늘을 우리러보며 활동하는 ‘세계 내 존재’이다.

사람은 몸과 정신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며 땅과 하늘의 중간자로서 인간성의 본질은 정신과 물질 양자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양의 전통들이 몸의 특정 부분에 구체적인 정신적 의미를 부여한 것도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삼극(三極)으로서 인간의 형상을 이루는 ‘태권도’는 너무도 인간적인 몸짓으로, 그 몸짓이 인간의 본능적 호신 행위를 바탕으로 한 ‘수양과 절제의 예술’로 승화하여 한 번 내지름과 한 번 견어참이 바로 철학적 행위로 보는 것이다.

#### 4. 천지인 기호 ‘·’ ‘—’ ‘|’

인간적인 몸짓인 태권도 동작은 천지인(하늘땅사람)의 표상이다. 인체의 세 부위는 천지인을 표상하는 동작의 구조이다. 인체에서 머리는 둥근 점(·)이요 두 발은 벌려 땅을 디더 하나의 평선(면, —)을 그리고 몸통은 바로 세워 입선(|)을 이룬다. 이를 기호화하면 ‘·’ ‘—’ ‘|’로 표기된다. 이 셋이 모여 ‘하나’(동작)가 생성된다. 천지인, 곧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상호 교감하여 살리는 ‘한’론의 의미는 태권도에서의 “인간적 몸짓”인 상징적 기호가 ‘·’ ‘—’ ‘|’인 것이다. 이는 한글에서 모음의 창제 원리로서 천지인 삼태극을 상징하는 ‘·’(天) ‘—’(地) ‘|’(人) 기본음 셋이다. 한글의 글자는 초성·중성·종성의 3성으로써 이뤄진다. 음양의 원리를 포함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태권도는 ‘한’(삼태극)론 중심의 음양오행론이라는 민족문화의 구성 원리와도 일치한다. 하늘·땅·사람 삼극은 삼재라고도 하는데, 이는 한의 몸체로 ‘삼극은 한 몸이다(三極一體)’. 하나에는 셋을 품는다(執一含三). 셋이 모여 하나로 돌아간다(會三歸一)라는 뜻이 담겨있다.(『천부경』)

‘하나(한)’을 가리키는 것은 ‘도’이고 도는 그 근본을 지킨다. 점·선·면은 동작의 내성으로 운동의 원리인데 기호화한 것이다. 동작과 신체의 운동 역학적 원리로서 함수관계를 이루며 ‘·’은 태극점이며 공방의 접점, 회전과 원 운동, ‘|’은 직립한 신체에 있는 생명 중추로서 생명선과 중심선, 그리고 ‘—’은 기저면과 목표선에 해당된다. 이 모든 원리가 천지인으로서 동작에 그대로 적용되며 태권도의 동작은 만물의 형체와 자세, 접촉과 상호작용들의 효율적인 기술을 말하며, 사람과 우주의 일치성을 반영하는 자연적 상징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하나의 동작은 서기(자세)+공방(행위; 氣)+시선(정신) 등 ‘셋이 모여 하나’를 이룬다. 태권도에서 몸을 구성하는 세 부위, 즉 아래, 몸통, 얼굴이 동작을 낳는 요소이며 그 각각의 운동적 요인은 동작의 구성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태권도적 용어이다. 하나의 동작이 동작답기 위해서는 또 다른 외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다. 균형과 조화 그리고 상생의 요인이 그것이다.

동작을 하는 주체는 몸이다. 즉 ‘몸’은 사람의 구체적 표현이라면 사람은 몸의 보편적 표현이라 하겠다. ‘몸’과 ‘사람’은 같은 말이며, 우주(하늘)와 일체를 이룬다. 몸-사람-우주가 ‘하나(한)’을 이루는 일체적 구조가 ‘동작’의 철학적 표상이다.

태권도를 통해 심신을 단련한다는 것은 바로 철학함이고 방편이 되는 동작의 의미는 바로 몸의 몸짓으로서 가장 구체적이며 인간적 실천 행위이다. 몸은 우리들의 삶과 세상을 담은 그릇인 동시에 그 세상을 해석하고 만들어 가는 주체이다. 나는 몸이며, 몸은 끊임없이 생성함으로써 존재한다. 나의 몸은 삶과 실천함의 장(場)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결과 새로운 몸을 생성한다. 날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몸을 단련하는 수련법은 동작의 원리를 따르고 그것을 쫓는 것이다.

## 5. 태권도의 음양오행 원리

세종은 『훈민정음』에서 천지의 이치는 오직 음양오행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소리에는 음양의 이치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데 옛 사람들이 이를 살피지 못하였다고 한다. 천지의 이치는 오직 음양오행뿐이라면 태권도의 이치도 마찬가지이다. 음양오행이란 음양의 원리와 오행의 원리를 줄여 말한다. 태권도 이치도 음양오행에 따라 설명이 가능하다.

태권도 기술체계를 이루는 주체는 바로 ‘동작’ 개념이다. 동작의 음양이란 공격적 동작과 방어적 동작으로 앞의 것은 양기고 뒤의 것은 음기다. 동작의 주체인 인체에서 음양이 나뉜다. 아래부위는 음이고 몸통부위는 양이다. 동작이 도, 태극이라고 볼 때 하나에서 둘로 나뉘는 동태(動態)적 현상은 양으로 공격과 방어적 동작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동작이 동태라면 품은 동작을 낳는 근원으로서 ‘태극’이라는 정태(靜態) 개념이다. 태극이 움직여 양의(兩儀) 즉 음과 양을 낳고 사상(四象), 팔괘(八卦)로 분화, 확장되듯 품은 동작을 낳고 동작은 공방(攻防)이라는 양의 개념이 성립된다.

달리 동작이란 기법을 의미하는데 엄밀히 따져 동작을 동작이게 하는 것은 기(氣)의 전달이라는 것의 이해가 필요하다. 몸이라는 ‘하나’는 바로 ‘기’의 상징과 의미이다. 그 일기(一氣)에서 음양적 원기라는 양의가 생(生)하고 그 두 기가 바로 음기와 양기의 속성으로 강(剛)과 유(柔), 완(緩)과 급(急), 자세의 고(高)와 저(低), 보폭의 장(長)과 단(短) 등 성질, 즉 사상(四象)을 낳고 다시 분화하여 팔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팔괘란 동작에서 표현되는 서기와 차기, 막고 지르는 각각의 사지(四肢)의 움직임이라는 기운과 변화를 의미한다.

태극은 인체의 허리 개념이다. 허리의 움직임이 팔의 원전(圓轉), 선전(旋轉)을

수반하게 된다. 몸의 팔괘 원리란 바로 기의 원리인데 그 기운은 다시 인력과 척력, 즉 음양으로 구분된다. 그것이 실제로 동작에서 굳셈과 부드러움(강유), 느림과 빠름(완급), 높음과 낮음(고저), 긴 것과 짧은 것(장단)의 배분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력)과 서로 물리치려는 힘(척력)의 작용이 ‘동작’의 여러 변화 현상을 낳는다는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태권도에서 오행이란 동작의 수련체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다섯 가지는 14개의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격파, 호신술 등이다. ‘하나’의 동작이 드러내는 특성이 오행이라는 수련과정, 체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 다섯 과정인 오행은 오늘날 새로운 진화를 보이고 있다. 겨루기는 일찍이 스포츠화로 인해 ‘태권도’를 대변하는 호칭으로 태권도=스포츠라는 등식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격파는 시범문화로 정착이 된지 오래이다. 품새와 겨루기 구분은 상대가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가의 있고 없음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때문에 품새는 대자(對自)적 행위이고 겨루기는 대타(代打)적 행위라고 칭하는 것이다. 시범은 태권도의 종합으로서의 기술체계로서 태권도의 예술적 경기를 문화형태로 대중 앞에서 홍보 수단으로 공연되는 것을 말한다.

태권도적 오행은 방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중앙이 동작 개념이고 동의 목(木)은 품새, 남의 화(火)는 겨루기, 서의 금(金)은 격파, 그리고 북의 수(水)는 호신술이라는 오행의 과정을 말한다. 중앙의 토(土)는 동작 개념이다. 천지자연의 이치는 오직 음양 오행이라고 본 세종의 혜지가 이렇듯 태권도에서도 주요 원리로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오행은 복장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수련 시 입는 수련복을 도복이라 하는 데 도복은 바지저고리를 말한다. 바지는 음, 저고리는 양으로 그 둘을 잇는 띠는 위계로서 오방색으로 나뉜다. 복장에서도 절묘한 음양오행의 이치가 적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사례로 설명이 가능하다.

## 6. 태권도, ‘한’ 철학과 홍익인간 정신

천지인 삼극은 단순히 문양이 아니라 여기엔 한국 고유의 철학이 담겨 있다. 음양과 오행도 하나, 즉 ‘한’에서 파생된 것이다. 둘과 다섯은 하나에의 근원적 이치에 말미암는다. 둘이 모여 하나가 되고 다섯이 모여 하나가 되는 이치, 그리고 천지인 셋이

하나가 되는 이치는 결국 하나에서 모든 것이 파생되는 것으로 이는 인간이 이해하고 나눔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한’은 도, 태극 등 같은 뜻으로 순우리말로써 음양오행의 상위개념이다.

모든 만물은 태극에서 나와 하나로 돌아간다. 품새 태극에서 닦음이 시작되고 하나로 돌아감 곧 일여로 끝난다. 태극은 하나로서 움직여 양의, 즉 음과 양을 낳는다. 품새는 음양으로 유급자 품새와 유단자 품새로 나뉜다. 시작이 태극(太極)이고 끝남이 일여(一如)이다.

일여란 마음(정신)과 몸(물질)이 하나이면서 원리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높은 천리를 말하고 이것은 점이나 선이다. 원이 하나가 된다는 뜻을 나타낸다. 태권도 수련의 완성은 모든 기법과 동작이 모양이나 운용을 다르게 배우고 행하지만 궁극에서는 합쳐지면 나아가 정신과 동작이 일체가 되는 깊은 무예의 진리가 바탕에 깔려져 있는 품새가 일여이다. (『태권도교본』 국기원)

음양오행도 다르지 않다. 그 근원은 ‘하나’로부터 말미암는다. 태권도 주체는 사람 인(人)이다. 인중(人中)사상은 인간의 최고 변화를 의미한다. 사람은 천지와 더불어 셋을 이룬다. 사람은 하늘의 양성만을 가져서도 안 되고, 땅의 음성만을 가져서도 안 된다. 음양을 다 가져야만 완전한 인격이 될 수 있다. 하나, 즉 ‘한’은 태권도 주체사상이다. 태권도인의 정신적 뿌리로서 그 뜻은 크다. 높다. 밝다, 환하다. 음양이 하나이듯 전체적으로 하나라는 의미가 다양하다. 일체성의 뿌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라는 ‘한’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한’ 철학의 중심 내용이 있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 심신과 천인이 서로 나뉘지지 않은 일체성과 조화성을 말하는 것으로 곧 ‘한’의 철학 사상인 것이다.

‘한’ 철학의 중심인 ‘한’은 존재론과 천지 만물의 근본적 실체로서 시원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태권도 수련은 바로 ‘한’의 철학적 신체론으로 천지인 삼극이 하나이며 ‘한’의 체계와 본질을 터득하는 것이다. ‘한’사상은 조화성을 내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커다란 하나의 입장에서 다른 부분들을 포괄하고 있다.

태권도의 원리는 ‘한’의 철학적 원리와 사상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동작은 삼극 곧 ‘한’(하나)으로 표현되고 변화(움직임)와 생성이 기(氣, 힘)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태권도의 ‘한’ 철학은 ‘한’의 주체로서 소우주인 인간이 대우주인 천지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태극(☯)에서 출발해 마지막으로 길상만덕의 상징인 일여 품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우주적 차원에서 파악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태권도 정신의 바탕은 어디에서 말미암는가. 태권도 정신도 하나의 동작 원리에 근거한다. 동작이 동작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균형과 조화 그리고 상생의 원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하나의 동작이 동작되기 위해서는 동작 목표의 달성은 최종적으로 상생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동작의 상생이란 오행의 상생하는 이치에서 드러나듯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협력하는 정신이다. 동작에서 태극은 음양의 화합을 뜻한다.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수련의 덕목으로서 정신을 함의한다. 수련의 매개는 동작을 수행하는 주체이자 심신의 주체인 ‘나(我)’이다. 나는 나의 마음의 행위에 따른 몸의 행위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그 행위의 목적은 정신과 기, 그리고 신체의 닦음에 있다. 동작의 일차적 숙달은 형이하적 기술의 숙련에 있고 그 경계 너머에 정신의 닦음을 통해 나의 본성을 찾자는 인간됨의 전인(全人)과정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 태권도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의 하나는 반성적인 사유이다. ‘인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그것은 사람 간의 주체화 과정이다. 태권도 정신이란 인간에게 가능한 가장 완전한 발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태권도 정신은 올바른 사람을 만든다는 중요한 가치관에 기초한다. 태권도를 잘 한다는 기술자가 아니라 태권도 하는 사람, 즉 태권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태권도 인(人)으로서 ‘사람됨’ 내지 ‘사람 노릇’ 하는 인간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에 있다. 태권도 정신의 보편적 특성이란 우리의 전통사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되레 깊은 관계 속에서 습합된 인간됨의 덕목인 유가의 오덕이 몸과 몸짓 속에 내재된 도덕적, 윤리적 가치로서 주체화 과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글속의 태권도는 천지자연의 이치를 좇아 한민족의 몸짓 속에서 진화되어 그 정신과 이념이 한민족의 몸짓의 경계너머 보편적 정신으로 숨 쉬고 있다. 한민족의 시원은 단군이다. 단군(檀君, B.C. 2370~2240)은 천제(天帝), 환인(桓因)의 손자이며, 환웅(桓雄)의 아들이다. 단군에 관한 『삼국유사』의 내용은 이러하다.

“옛날 환인(桓因)의 서자(庶子) 환웅(桓雄)이 천하에 뜻을 두고 자주 인간 세상을 탐내어 찾았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로 삼위태백(三危太伯)을 굽어보니 인간을 널리 유익하게(弘益人間)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천부인(天符印) 3개를 주어 인간세계로 보내 다스리게 했다”

『삼국유사』의 단군신화에 나오는 ‘홍익인간’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며 교육이념이다. 태권도 정신도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

백범 김구가 일찍이 말했다.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하기로 원한다.” (『백범일지』 초간본, 1947년 12월 15일)

태권도는 자기보존의 본능에서 발생한 오로지 힘과 기술적인 측면만이 모든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책임을 중히 여기는 선비 기질과 작은 미물과도 함께 호흡할 줄 아는 만인 평등사상을 품고 있으며 인격의 완성을 향하여 부단히 정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태권도의 내면적 정신세계에 흐르는 홍익인간, 평화정신, 정의를 수호하는 결백정신 및 투철한 책임감 등을 하얀 도복 안에 품고 한민족의 숭고한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서 태권도 정신을 확립·실천함으로써…(『태권도교본』 국기원)

‘홍익인간’은 태권도 정신으로 가장 적합한 표현이다. 태권도는 한민족의 고유무예로서 출발하고 있으나 오늘날 전 세계인이 즐겨 평화를 지향하며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는 원동력이다. 태권도의 주체가 되는 태권도인의 정신세계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며 평화를 기리고 공존 상생하는 정신 속에서 태권도인은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도와 하나가 되다’라는 표현은 도가 하나 곧 ‘한’에 포용되어 도를 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진정 태권도인은 도와 하나가 되어 몸의 천지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경 명 소장

(현)태권도문화연구소장  
(현)태권도진흥재단 자문위원  
(전)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 『세계화에 적합한 태권도 철학 및 정신 구축』에 대한 논평

하 피 터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교수

이 글에서 이경명 선생님은 세계화 시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교류에 있어서 태권도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태권도철학과 정신에 초점을 맞춰 해명하고자 한다. 이경명 선생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스포츠로서의 태권도는 사실 이미 세계화되어 있다.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태권도는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는 국제적인 스포츠가 되었다. 더 나아가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각국의 수많은 태권도 선수들이 수련에 전념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로서의 태권도는 이처럼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했으나, 이에 비해 정신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태권도철학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이제 태권도는 스포츠로서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세계적으로 전파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태권도정신을 확립하고자 시도하는 이경명 선생님의 글은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세계화 시대에서는 경제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인 교류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서양문화를 받아들이는 데에만 급급했지 우리 고유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 반전된다. 현재 우리

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리고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한류 열풍에 태권도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 1970년경부터 해외에 파견된 사범들에 의해 태권도는 세계에 널리 알려져 왔다. 이러한 사범들의 노력에 힘입어 전 세계에는 7,000만명의 태권도 수련자들이 있으며, 이 수련자들을 관리하는 세계 태권도 연맹에 190개의 회원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태권도를 수련하는 데 있어 전 세계인들은 구령이나 지시를 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고유한 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하고자 하는 한류의 원조는 태권도라고 볼 수 있다.

태권도정신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사실 산업 혁명 이후 세계는 서양 문화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리고 산업사회에서의 근대 서양 문화는 인간(정신)과 자연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자연을 무제약적으로 사용한다. 그 결과 21세기에 이르러 인류는 대기 온난화와 같은 환경파괴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자연이 훼손됨으로써 야기된 환경재앙을 경험한 인간은 자연이 더 이상 정신과 대립되어 있는 대상이 아니라 정신과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다시 말해 이제 사람들은 정신과 자연을 분리된 것으로 본 근대 서양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 모범(paradigm)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된다.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정신과 신체 그리고 정신과 자연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태권도정신은 근대 서양 문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문화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경명 선생님은 태권도정신의 본질은 하늘(천)과 땅(지) 그리고 인간이 하나라고 보는 삼재사상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천부경』에 제시된 삼재사상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태권도는 ‘한’ (삼태극)론 중심의 음양오행론이라는 민족문화의 구성 원리와의 일치하며 하늘, 땅, 사람 삼극은 삼재라고도 하는데, 이는 한의 몸체로 ‘삼극은 한 몸이다.’ 하나에는 셋을 품는다. 셋이 모여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이 담겨있다.” (6쪽) 여기서 말하는 “한의 몸체”는 정신과 자연이 하나로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동작을 하는 주체는 몸이다. 즉 ‘몸’은 사람의 구체적 표현이라면 사람은 몸의 보편적 표현이라 하겠다. ‘몸’과 ‘사람’은 같은 말이며, 우주(하늘)와 일체를 이룬다. 몸-사람-우주가 ‘하나(한)’을 이루는 일체적 구조가 ‘동작’의 철학적 표상이다.” (6쪽) 따라서 태권도의 삼재사상에 따르면, 인간과 자연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통일된 존재로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성에서 인간과 자연은 대립되지 않고 서

로 공존한다.

인류를 하나로 묶는 세계화는 일차적으로 정신과 자연의 이분법에 입각한 서양 문화에 의해 주도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에서 인간으로부터 유리된 자연은 경제적인 착취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었으며 그 결과 환경문제가 야기되었다. 지금에 와서 인류는 그동안 세계화를 지배해온 서양문화와 본질적으로 다른 문화적 기초가 필요하다. 이경명 선생님은 정신과 자연을 하나로 보는 한국 고유의 사상에 기초해 있는 태권도 정신에서 새로운 문화의 토대가 제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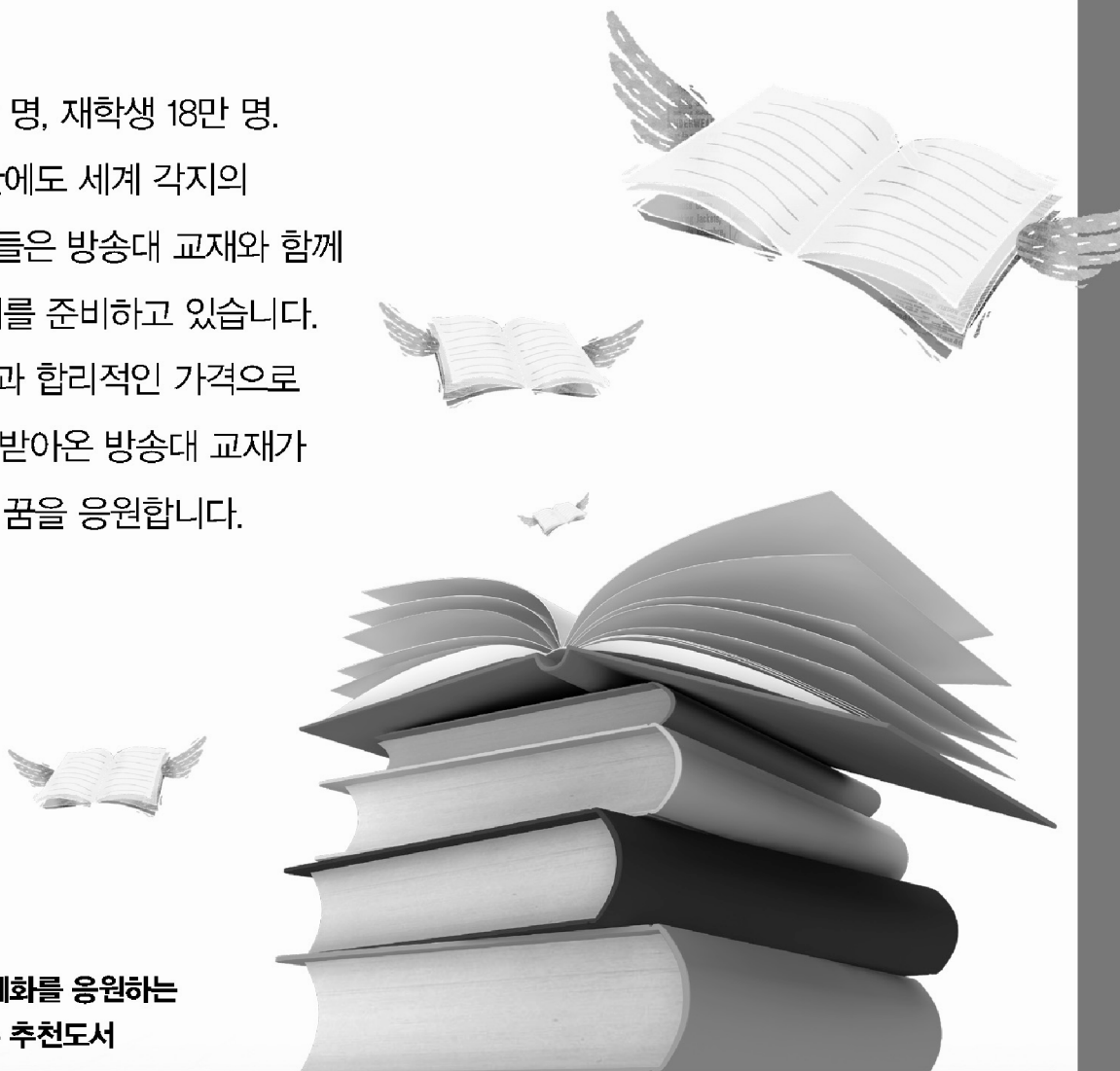
하 피 터 교수

벨기에 루벤 대학교 철학박사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교수

# 50만 명의 운명을 바꾼 책!

## 방송대학 교재가 이제 당신을 응원합니다!

졸업생 50만 명, 재학생 18만 명.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의  
방송대 학생들은 방송대 교재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내용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40년간 사랑받아온 방송대 교재가  
이제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 ● 한국어의 국제화를 응원하는 방송대출판부 추천도서

#### ●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국영문 합본)

Readings in Korean Culture for Foreigners  
김혜옥 지음 | 452면 | 20,000원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엮음  
330면 | 13,000원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엮음  
284면 | 12,000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지식의나침  에피스테메 press.knou.ac.kr